

금주의 기도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 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에 수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0월 12일 (토) 제 175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CT, 기독교 부정하는 오늘의 문화, “사마리아” 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안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신앙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부는 왜곡된 정보이지만), 그 신앙에 노골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의 대화를 묘사하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요4:9)이라고 설명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의절한 형제처럼 원한에 사무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둘은 부분적으로 세계관을 공유하고(서로 다른 판본이지만 둘 다 모세오경을 믿었다),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으며(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같은 주제를 두고 각자 잘 정립된 주장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예루살렘과 그리스산 중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잘 알았기에 더욱 상종하기 어려웠다. 복음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

지 않은 사마리아 마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월절 순례자들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푸대접을 종교적 모욕이라고 여기고, 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 마을을 통째로 날려 버리고 싶은 만큼 화를 내며 필필 뛰었다(눅9:51-56). 상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향한 의심과 원한을 더 심각하게 만든 형국이다.
 팀 스탠포드는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오늘의 문화가 사마리아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에 살면서 승리하는 지혜를 말해준다(This Samaritan Life: How to live in a culture that is vaguely suspicious of the church).

나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미국에서 종종 발견한다. 우리의 믿음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너무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이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처럼, 미국의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은 세계관을 공유하고(성경을 포함한 서구 전통), 같은 조상에서 나왔으며(메이플라워호에서 시작된 기독교 국가), 같은 주제를 두고 각자 잘 정립된 주장으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 의심하고 적개심을 더욱 키워 나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미국사회 특성상, 적대감은 쉽게 표현되는 감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적대감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나를 화들짝 놀라게 한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교회건축이 계획되면



서 토지용도 변경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다. 나는 이웃 주민들이 그 조그만 교회를 반쯤은 따뜻한 환대로, 반쯤은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잘 단합된 적개심이었다. 주민들은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만들어 돌리고, 함께 모여 토지계획위원회와 시의회에 몰려갔다. 교회건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는 모두

이사 오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적개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감은 관용(tolerance)과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것들을 무기로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자주 나타난다. 크리스천들은 보통 관용의 정신이 희박하다(특히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무신론자, 진화론자, 타종교인, 낙태지지자들에게)는 말을 자주 듣는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절대 진리와 완전 무결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3면으로 계속)



“선교적교회 컨퍼런스 2019” 참석자들이 첫날 개회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주와 한국 교회가 함께한 “선교적교회 컨퍼런스 2019”

‘선교적교회 컨퍼런스 2019’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서 32명과 미주에서 7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컨퍼런스는 실질적으로 미주의 양종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와 한국의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가 주도하며 만나교회, 필그림선교교회, 베다니교회, 교회성장연구소, 국민일보가 공동주최했다.

각성과 패러다임의 변화 돕기 선교적 리더십 양성 선교적교회개척 선교적교회 전환 로드맵 제시

주최측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들이 21세기 빠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함께 대안 방향으로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에 새로운 각성과 패러다임의 변화 돕기 둘째, 선교적 리더십 양성 셋째, 선교적 교회개척과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돕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중세교회 1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봉영찬 목사	16면
--------------------------------------------------------------------------------------------------------------	-----------	---------------------------------------------------------------------------------------------------------------------	-----------	---------------------------------------------------------------------------------------------------------------	------------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i.edu | (7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청소년서적 / 생애 / 영적 / 기쁨 / 교제 / 영성 / 영성서적 / 영성기행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2-21 159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Glenwood Terrace, Paramus, NJ 07652)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훈련, 생애과정, 주일 재학,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6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644

KIM Mission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글로벌 세미나
 :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C다시교회 원로목사)	 토나히트만 목사 (SA Anglican Fellowship)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전광성 목사 (NY 허크리시교회)	 김용식 목사 (상북울영장교회)	 김태석 목사 (보령신교회)	 김대웅 목사 (이스탄불교회)
 김성남 목사 (미국군교회)	 윤영영 목사 (LW Comm. Church)	 배나베지김 선교사 (미국군교회)	 김정웅 박사 (에티오피아)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최도문 박사 (지리시, 알라바마)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황정광 장로 (프린스턴)	 황정규 집사 (비즈니스, NY)	 손동우 박사 (비즈니스, NJ)	 이원구 안수집사 (신영(비밀, 서울))	 임소연 집사 (간호사, NJ)	 강동철 집사 (Boston, MA)	 이순권 박사 (지리시, TX)
 김상익 장로 (WCP 보몬트 회중)	 김보옥 박사 (COP Hitch 데라)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최인덕 권사	 윤천경 권사	 육진영 권사
 서덕희 집사						

기도이사

[퍼스펙티브스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동영상 강의 진행 중]
 KIM Mission이 지난 18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매주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com)를 방문하셔서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혹은 “김경환 TV”로 검색하시면 모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부분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1-15과 전과목, 특강1. “한국교회 역사” 특강2. “이슬람의 생명신학” 에 이어 특강3.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트렌드)” 강의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78강 일로드).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적인 삶으로 재현신한 우리 김 미션의 동역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웨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좌우명을 우리 삶속에서 실천하고자 자비량 선교와 자비량 헌신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김 미션이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유비쿼터스 (Ubiquitous)** 사역은 유튜브 영상과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세미나 자료를 사용하여 선교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이 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현지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방식으로 계속 확산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미션은 미주 전역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이 세미나 혹은 선교사명회를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드립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 발행인 칼럼 ●

열려라 참깨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열려라 참깨”하면 열리지 않는다. 물론 “열려라 참깨” 해도 소용이 없다. 반드시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동굴 앞의 문은 활짝 열린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물이 가득한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깨”하면 그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 일뿐이다. 은행 창구 앞이나 재벌회사 정문에서 계속 “열려라 참깨”라고 외쳐보시라.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 나던가 체포 되던가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마시라.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열려라 참깨”보다 실제적이며 진짜 놀라운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질문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잡혀 있던 보물 같은 지식이 쏟아져 나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내심 자기들을 크다 하지 않으실까 라고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답변을 듣게 되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사도 예수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 질문자 자신과 오늘 우리의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속 이어지는 답변을 어찌 이 땅의 보화에 비교하겠는가. 바울의 이 질문은 역사를 바꾼 질문이었다.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제자들도 그의 스승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라는 질문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타고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매일 던져라. 그러면 자기를 이기는 인생이 된다. 첫째,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듯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누군가와 약속하고 찾아갈 번거로움도 없는데 너무 지혜롭고 유익한 삶의 방식이다. 운동주 시인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열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가을인데 나도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하고 싶다.

지난 주간에 “신교적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도 그랬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으리라. 다른 아닌 “신교적교회란 무엇인가?”이다.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와 신학생, 미국 한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모임에서 신교적교회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졌으리라. 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나도 그렇다. 모든 각도와 논의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가져다준 유익은 크다. 무엇이든 질문하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다.

세상에는 뼈빠한 질문도 적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급우가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간간하신 성격의 선생님이 칠판에 그 질문의 답을 써 가시며 정성을 다해 설명하시는데 정작 그 질문한 친구가 졸고 있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 순수한 질문에는 그 자체에 겸손이 묻혀있다. 겸손하게 질문을 자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 던져보자. 그리고 그 답을 경청해보자. 풍성한 수확의 가을이 될 것이다.

“2020대선, 트럼프의 청년십자군을 주목하라!”

뉴스위크, 진보문화맞서 싸우는 반항아 자처 트럼프의 청년지지층 인터뷰 기사 보도

스토미 로드리게스(21)는 예전에는 인종 차별적 악담은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멕시코 접경으로부터 불과 110여km 거리의 텍사스주 미션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싱글 맘의 딸로 성장했다. 히스패닉계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범하고 꽤 무사평온한 삶”을 살았다. 2016년의 어느 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텍사스주립대 학생이던 그녀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좌파로부터 곧바로 막말과 ‘웻백(wetback, 강을 건너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옷이 젖은 데 비유해 라틴계 불법입국자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 등 온갖 욕설이 빗발쳤다고 한다. 그녀는 “과친구 중 몇몇은 나를 인종 반역자로 불렀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뒤 젊은 유권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대중문화계는 매일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다. 상당수 대중매체도 마

찬가지다. 로드리게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은 교수들이 거의 한결 같이 그에게 적대적이며 다른 대다수 학생도 그렇다고 말한다. 텍사스주 같은 공화당의 거점 지역에서도 젊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면 강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위크와 인터뷰한 트럼프지지 청년층 10여 명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이유가 분명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지 않으며 자신들도 그런 평가를 거부한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지나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의 보이콧을 촉구하는 ‘왕따문화(cancel culture)’와 정치적 올바름(차별적 또는 부적절한 표현의 사용금지)에 넌더리를 낸다.

콜로라도 주립대학 졸업생인 이사벨 브라운은 “날마다 온종일 학교에서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 그런 문화의 수용을 강요받았다”고 지난 7월 뉴스위크에 말했다. 이들은 동년배 세대 다수와 달리 사회주의에 매력을 못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걸려지지 않은 개성에서 즐거움을 얻는다(Young Trump Voters Like These Are Key to a 2020 Victory).

확보하는 데 그쳤다.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획득한 60%보다 5%포인트 적은 수치다. 좋게 말해 클린턴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후보라고 보는 청년층이 많지 않았다(2008년 오바마는 30세 이하 그룹의 표 중 무려 66%를 획득했다).

퀸피악대학 대선 여론조사기구의 메리 스노 분석가는 “또 한 번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난번보다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2016년 혼란스럽고 자금 부족인 선거 운동에서 37%의 청년층 표를 획득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2020 대선캠프는 이미 1억 25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으며 집권 주에서 청년 유권자를 겨냥해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다. 2016년 트럼프의 디지털 미디어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파스케일은 대통령의 장기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런 노력이 이뤄지겠지만 “전통적인 발품 팔기 선거운동”도 병행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캠프는 가상·현실



트럼프 재선 열쇠 진 한 그룹 18-29세 유권자 지지층 두터워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며 미국적 정신, 감세, 사법부인선 등 호감

대다수는 “반항적이지 않고 별로 사려 깊지도 않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진보’ 아젠다에 충실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저항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수파들은 조용하고 정중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조용하고 정중하게 반응하리라고 기대했다. 지금은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문화와 나라가 상당히 달

라지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청년층은 정치적인 ‘관심 그룹’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2020 캠페인 선대 위원장 브래드 파스케일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는 트럼프 재선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두 인구집단 중 하나다(다른 한 그룹은 온건파 무당층과 공화당 소속 여성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청년층 유권자 그룹의 지지확보가 아니라(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선대위도 안다) 주요 주

에서 민주당 지명후보와의 표차를 좁혀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이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진영이 보여준 고차원적인 노력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2016년 대선 결과에 근접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55%의 청년층 표를

세계 선거운동에서 외부 단체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2016년에는 받지 못했던 지원이다. 그중 하나가 7년 전 당시 18세의 찰리 커크가 설립한 터닝포인트USA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서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Major, Duration, and Requirement. Includes Theology (4 years), Bible (4 years), and other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Major, Duration, and Requirement. Includes Ministry (3 years), Bible (2 years), and other programs.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1면에서 계속)

일부 세속주의자들은 크리스천들의 이러한 비판을 관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양성을 좋아하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양성만을 지지한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격한 기독교적 도덕기준을 믿는다고 말하는 행위는 비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과거의 관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뜻으로 넓어졌다. 모든 차이와 다름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현대가 정의하는 관용이며, 급진적인 도덕 상대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뿌리 깊은 적개심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살게 된 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곳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믿는 바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부터 하는 그런 곳이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조차 싫어하는 곳이며, 당신이 사회를 지배하려 든다고 미리부터 오해하는 곳이다. 이들이 말하는 관용사회란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꼭 붙들어 매고 억눌러야 하는 곳이다.

그러한 억눌림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침묵을 지키거나 적당히 섞이거나 아니면 도전장을 던지는 것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방법 모두 토론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한한다.

욱 깊어질 뿐이다. (만일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향의를 맞아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대신, 켈러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 그리고 그분

에게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야곱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암시하면서 해묵은 예루살렘 대 그리스신론 논란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그녀의 어투가 도전적이었던 단순한 빈정거림이었던 그녀는 논쟁을 일으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케케묵은 말싸움에서 한 발짝 비켜서, 호기심을 일으키는 독창적인 언어-“생수”(living water)-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모든 차이와 논쟁이 새롭고 깊은 진리 속에 녹아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역시 그러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이 우리의 급진적인 견해를 가리지 못하고, 진부한 논쟁을 피하게 하지 못 하더라도 말이다.

이 내려놓으셨던 힘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역시 겸손과 섬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러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다른 편 뺀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자들은 그들을 모욕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길 원치 않으셨다.

결론으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대화의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랜 인내와 사랑이다. 분명한 것은 직접적인 반격으로는 어느 누구도 오래적대감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적개심으로 무장한 다른 편에서 있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항상 존중하셨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이웃사랑의 예화로 들기도 하셨다. (우리가 미덕의 예화를 든다면, 주인공으로 누구를 등장시킬까?) 그리고 또한 당신의 부활을 알고자 제자를 사마리아로 보내셨다(행 1:8). 빌립은 이 명령에 충성했고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행 8:8). 원한과 적대감은 결국 무너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문득 나는 요즘 크리스천들이 대화가 거칠어진 텔레비전 토론을 잘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였던 것처럼 다른 마을로 가거나, 일대일 대화의 기회를 엿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공산주의에 근거) 등이다. YAF는 버클리 로널드 레이건 본론 ‘진정한 보수주의’의 후원자를 자처한다. 그 단체 출신자 중 일부가 2016년 트럼프 선거운동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공화당 보수파가 아니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공화당 내에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그룹이 항상 존재하는 까닭이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학캠퍼스에서의 보수단체결성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60년 윌리엄 F. 버클리 설립한 단체 ‘자유위험미국청년들(YAF)’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지부를 운영했다. YAF는 표준 보수주의 이론의 바탕 위에 설립됐으며 그것을 계속 실패했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지지, 제한적인 정부,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개입(초기에는 확고한 반

(4면으로 계속)

시론

충돌하는 세상에서 찾아야 할 길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개인의 관점(觀點)과 해석(解釋)의 차이가 관계를 무겁게 하고, 전쟁(戰爭)과 정쟁(政爭)은 온 나라를 무겁게 덮어버린다. 소설가 김훈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글의 말미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 뺏가루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 낼 수 있다. 결국은 가볍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의 자리는 뺏가루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소설가의 진단이다. 그러나 뺏가루의 가벼움만으로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이든 한 부류가 상대방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무거운 먹구름을 몰아온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는 단순한 정반합의 논리로 진행되기보다는 충돌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이 그랬고 해방 후 한국의 우파와 좌파, 그리고 경영주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마주보고 달려가 결국엔 충돌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질주를 해왔다. 그 질주는 시대변천에 따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는 언제나 무겁다.

밀란 쿤데라의 “잠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볍게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하다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체코가 소련에 침공당한 암울한 시절을 배경으로 이 소설에 등장시킨 네 명의 주인공은 무거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인가가 삶이 막혀버릴 때 이들은 섹스중독을 선택한 토마시, 남편의 그와 같은 모습에 자기도 불륜을 선택하는 그의 부인 테레자, 영망이 되어버린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무시의 캐릭터인 사비나 그리고 유망한 대학교수인 프란츠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행진에 앞장서지만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아 침묵을 선택한다.

무거운 시대적 삶의 주제에 나름대로 접근해보려다 결국엔 가벼움을 선택한다는 줄거리의 이 소설도 결코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도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할 뿐이다. 바다 건너오는 한국의 소식을 외면할 수만은 없고, 발을 딛고 사는 미국 또한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민자인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두 개의 무거운 짐을 이고 살아가는 버거운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여기서 들려오는 말도 저기서 들려오는 말도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다. 무겁다. 잔뜩 찌푸린 하늘처럼 무겁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유분방해지거나 홀로 고고해지거나 내 마음 가는대로 살겠다고 선언해버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의(justice)를 부르짖는 두 부류가 결국엔 “우리가 더 모였다”는 크기(size)로 ‘바르다(義)’는 판단을 주장하고, 미국도 위장된 이기주의로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교회들조차 ‘큰 것, 많은 것이 바른 것’이라는 헛된 주장을 펼쳐내고 있다. 세상은 “결국 너희들의 경건, 너희 신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만 수많은 인파의 숫자로 의(義)를 주장하는 백만, 이백만의 인파들 중에 누가 과연 벡세다 광야의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에 담긴 영생의 맛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충돌은 이기심과 자만심에서 나온 결과이다. 김훈은 화장터의 뺏가루가 하늘로 뿌려지는 자유함의 가벼움을 통해 무거운 삶의 이야기를 벗어날 방법을 말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길을 말해주어야 할 것인가?

(6면으로 계속)

“2020대선, 트럼프의 청년십자군을 주목하라!”

(2면에서 계속)

이 단체는 미국 전역 대학캠퍼스에서 커크가 말하는 이른바 ‘보수파’를 결집하지만 여기에서 ‘보수파’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미한다.

이 단체는 1000개 이상의 대학 지부를 갖고 있으며 회원 수가 4만 명을 웃돈다. 커크는 내년 이들을 이끌고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2012년의 ‘미국을 위해 오바마를(Obama for America)’ 캠페인

에 기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터닝포인트의 활동은 소셜 미디어만큼이나 현장 발표 팔이로 이뤄진다. 커크는 미국 각지의 캠퍼스에서 트럼프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전례 없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는 “청년 유권자를 겨냥해 이만한 규모의 공화당 지지운동은 지금껏 없었다”며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학캠퍼스에서의 보수단체결성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60년 윌리엄 F. 버클리 설립한 단체 ‘자유위험미국청년들(YAF)’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지부를 운영했다. YAF는 표준 보수주의 이론의 바탕 위에 설립됐으며 그것을 계속 실패했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지지, 제한적인 정부,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개입(초기에는 확고한 반

공산주의에 근거) 등이다. YAF는 버클리 로널드 레이건 본론 ‘진정한 보수주의’의 후원자를 자처한다. 그 단체 출신자 중 일부가 2016년 트럼프 선거운동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공화당 보수파가 아니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공화당 내에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그룹이 항상 존재하는 까닭이다).

(4면으로 계속)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

주제말씀: 로마서 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CBMC는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기독교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 공동체입니다.

주강사 **공병호 박사**



경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라이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일본 나고야대 경제구조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자유기업센터 초대 소장
현 공병호 연구소 소장, 공병호 유튜브 TV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10년 법칙
공병호의 성공제한 기록하는 리더가 되라
3년후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석학을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리더의 나침반은 사람을 향한다

프로그램

- 10월 17일(목) - 10월 18일(금)
- 간단한 다과 제공
- 7pm ~ 7:30pm - 초청 찬양 밴드팀 연주
- 7:30pm ~ 9pm - 공병호박사 주제강연

-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 19일(토)**
- **참가비: 없음 (좌석 150석 제한)** ■ **예약 문의: (213)273-5779 사무총장: 신정현**
- **장소: 가든스위트 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 **주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 (총회장: 황선철 / 수석부회장: 강승태 / 부회장: 오윤호)**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어거스틴 (2)

지중해는 한없이 잔잔하고 푸르렀습니다. 마치도 꿈 많은 소년의 청결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걸을 몰래 빠져 나온 어거스틴은 로마행 배에 오르자 비로소 긴장감이 풀리고 안도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하고 착잡한 마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맏아들을 의지

하고 기대하는 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사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의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치 폼페이 유적 같은 모습이지만 당시의 인구가 3만여 명 정도 되는 왕성하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극장이나 목욕탕, 상가들의 유적, 그리고 물고기들을 모자이크한 도매상들은 현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웅거했던 작

은 바닷가 마을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곳에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실어 나르는 풍랑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로마시대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 하구이기에 물자를 왕궁 가까운 시내로 실어 나르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로마제국의 제일 큰 항구는 보디올(행28:13)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수입할 때 보디올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아피아 가도를 통해 로마까지 200Km를 그 많은 물자를 이동하는 일이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오스티아(Antica Ostia) 항구에 도착한 후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열병은 대부분 말라리아를 의미합니다. 동거하는 여자가 곁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무척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티아 항구 도시는 어거

스틴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유는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고 고향 칼타고로 돌아와려고 이곳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곳에서 모니카의 묘지 뒷개를 발견하여 근처 교회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티아 안티 카는 도시 구성이 아주 특이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의 길 좌편으로는 묘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묘지를 도시 번두리나 먼 곳에 지정합니다. 그런데 오스티아는 도시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묘지들을 통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묘지는 오래된 것도 있고 방금 장례식을 치른 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묘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요? 저건 삼촌 묘지네, 나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가겠지? 보다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본 능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남다른 꿈을 가지고 로마에 왔기에 가르치는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교사직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교사직은 칼타고에서 바라던 소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칼타고의 학생들은 학업 분위기가 엉망이었는데 로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학습 분위도 형편없었습니다. 콘스탄틴이 로마를 통일한 이후 서로마의 수도를 밀란으로 옮김으로 사람들은 실의에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은 로마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란의 시장이 로마시장에게 교사 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로마시장은 교사로

였고 어거스틴은 당시의 서로마 수도인 밀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영적근으로 전전 금공하는 어거스틴을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밀란까지 고속도로로 600Km입니다.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드디어 밀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 즉, 한 달여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직선적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말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가느냐는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지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양현 목사
(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약 1년반 동안 목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16장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교회가 안고 있었던 실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과 이혼, 우상의 제물, 공중예배,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문제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로 등장되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1, 4, 7, 10).

우상이 만연한 고린도의 성도가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에게는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먹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약한 자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상제물 문제는 고린도교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신앙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 진리의 원칙으로 해결하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마디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4절에 단호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우상에게 드러졌던 제물에 대해서 구속을 받거나 두려움

을 가질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쇠부처, 금은을 도금한 형체, 나무나 돌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

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와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증거합니다.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사도바울은 중요한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2. 사랑의 원칙으로 해결하라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은 지식보다 사랑이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귀중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도의 삶의 대원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증거합니다.

“나만 관찮으면 좋다” 라는 식의 생각과 행동은 성경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도의 대한 사랑이 결여된 어떠한 신앙적 행위나 영적인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3. 배려의 원칙으로 해결하라

9절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남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2절).

우리로 인해서 약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절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바울은 고기를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미성숙한 어떤 형제가 실족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해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이 있을 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를 세울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넘어 사랑과 배려로 주의 형제들을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8장 1-13절

는 말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이 지식이 형제를 망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들을 세우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 지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지식 자체를 정

여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지닌,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성숙한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2020대선, 트럼프의 청년심자군을 주목하라!”

(3면에서 계속)

하지만 다수의 청년 유권자는 정책의 순수성은 개의치 않는다. YAF의 회원 수는 2016년 이후 5% 증가했다. 커크도 시인하듯이 한 세대 남짓 전 자유시장 경제학과 옛 소련과의 냉전이 레이건 지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과 달리 트럼프지지 청년층 사이에는 그들을 결집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슈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의 태도와 관련됐다.

질식할 듯한 정치적 올바름의 시대에 특히 대학캠퍼스에서 대통령의 무신경(차별적 또는 부적절한 표현에 둔감함)을 보며 신선함뿐 아니라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프레이거대학에서 근무했던 터닝포인트USA 출신인 브라운은 그를 가리켜 “나를 사랑하고 미국을 위하여 미국적 정신을 되살리려 하고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점이 완전히 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프레이거대학은 보수파 토코소 호스트 데니스 프레이거가 설립한 온라인 교육사이트다.

브라운은 지난 9월 조지타운 대학 대학원에서 생체의학 정책과 권리옹호 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갖가지 방식의 관행타파는 이들 청년 지지자들을 멀리 밀어내기도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 중독을 예로 들어보자.

부모가 “조기에 독자적 의견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콜로라도주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브라운(22)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트윗을 띄운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그의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아주 마음에 든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년층 지지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이슈는 인종과 이민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비판자들은 그가 백인 우

월주의자와 반라틴계 움직임들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비난한다. 비판자들은 ‘개를 부르는 이런 호각소리(dog whistles)’가 텍사스주 엘파소(백인 우월주의자가 히스패닉계를 겨냥해 범행)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의 총기난사를 초래한 환경에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 언론의 몇몇 매체는 요즘엔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트윗을 “인종차별적”으로 부른다. 예컨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유색인종 민주당 의원 4명을 겨냥해 ‘완전히 파탄 나고 범죄가 횡행하는 자신들의 출신지’로 돌아가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월 트윗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렇게 묘사했다.

이 기사를 위해 인터뷰한 모든 보수단체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지지 청년층은 누구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는 그의 발언

과 정책의 몇몇 측면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새들백칼리지 3학년생 제이슨 리바스(22)는 1-10의 척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지지도를 “6.5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때로는 그의 언사, 트윗을 올리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6년에는 무소속의 자유주의자 후보 게리 존슨에 투표했던 리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 그런 단점을 훨씬 능가한다고 말한다. “그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밀어붙이고 낙태를 반대하며 무엇보다 친자본주의자로서 기꺼이 감세를 단행해 경제성장을 도우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

뉴스위크가 인터뷰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계산을 한다.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는가? 텍사스 대학(엘파소) 법학과 디에고 모랄레스(20)는 자칭 ‘때때로 트럼

프 지지자”다. 그는 확고한 민주당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이민에 대한 대통령의 접근법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매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민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그는 합법이민을 지지한다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미국의 정신, 미국의 사고방식을 되살리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칭송한다. “그는 친미국적이다. 사람들은 그 점을 좋아하며 나도 그렇다.” 낙태에 반대하는 법학과 학생인 모랄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선도 마음에 들어한다. “분명 몇 가지 잘한 일이 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분명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인명 살상

피해 숫자의 증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견해 또한 부정한다. 브라운은 “관계자이니 같은 죄가 있다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며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미숙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살상의 책임은 총기 난사범에게 있으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명백한 사실로부터 관심을 돌려 값싼 정치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지지 청년층이 확신하는 또 한 가지는 2020년 대선에서 그가 승리하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조 바이든이 앞서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카멜라 해리스에 뒤진다는 최근의 여론조사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로드리게스는 “나는 그의 집회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민주당 쪽에서 누가 그만큼 숫자 비슷하게라도 사람을 끌어 모으는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온라인 시대의 자녀교육-크리스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유하기 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서는 어리개는 2살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아이패드, 전화기에서 그들의 손을 떼지 못하여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단어들도 친숙해지고 있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세상문화에 그들의 영과 혼, 그리고 육신이 친숙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gadget들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로서, 교역자로서 어떻게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빠져들지 않고, 동시에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선포할 수 있는 빛의 문화, 예수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도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저희 T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단체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미디어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릇 지키말한 것보다 더욱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잠4:23)라고 경계해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 다음세대들의 "마음을 지키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알차며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르칠 수 있는 리소스(resource)들입니다.

1. Pureflix.com(All Age)-가족들과의 대화의 창: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서 Netflix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미디어입니다. 한달간 무료신청이 가능한데, 무조건 신청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미디어에 더 많이 투자할 때 바로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ureflix에는 어린이 만화, 드라마, 극장에서 이미 방영했던 좋은 영화들, 더 나아가 2-3년 전부터 창조과학의 대가인 Dr. Ken Ham의 지지를 받아 귀한 창조과학 자료들도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려운 과학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런 창조과학 영상들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Pureflix는 매우 작은 자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할리우드나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세련되고 화려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재미 위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밌고 유익하며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은 Pureflix이지만 늘 게임과 자극적인 것들에 눈과 두뇌, 마음까지 빼앗긴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부모들과 보호자, 교육자들의 좋은 설명과 함께 보면 어떤 교육 내용들은 가족들 간의 "대화의 창"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2. Protect Young Mind: Protectyoungmind.org(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들은 모든 연령에 다 좋지만 특별히 십대, 이십대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한 혼돈, 크리스천 데이팅,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어디계신가 등등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을 넓게 다루고 있고요, 어떤 때는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에게는 포르노에 이미 중독이 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3. Covenant Eyes: covenanteyes.com(당신의 자녀들의 눈, 마음의 창을 지키라!)

말 그대로 우리 자녀들, 청소년, 대학생, 젊은이들의 눈과 마음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창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중독이 된 학생

들에게는 어떻게 중독을 이길 수 있으며,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자료들,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미디어로서 역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금 게임과 인터넷 중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나쁜 습관을 어떻게 좋은 취미생활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4. Prager University or PragerU: prageru.com(청소년/청년/장년들에게 강력히 추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대학만 가면 신앙을 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배운 말씀이 그들의 삶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혼돈과 대립, 사회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마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PragerU에서 다루는 동영상들은 수많은 시사상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명백하게 팩트(fact)를 가지고 다룹니다. 따라서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들을 때 재밌고 교육적이며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육 미디어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동영상 토픽들입니다.

△Was Jesus a Socialist?(예수님은 사회공산주의였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i9EXnVikmo>
△Socialism vs Capitalism -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명답, △You Can't Fix the World but You Can Fix Yourself(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한글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c0Je4edU3E>
△All Immigrants must enter the United States Legally(모든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합법화시켜야한다, 한글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WbfSTms0BJw>
△Sex Matter! 성별은 중요하다(by Prager University) △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 -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감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Can Christian Become a Gay? 게이는 크리스천이 동시에 될 수 있는가 등등 많은 사람들의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자료들은 Tnext.org에 가시면 나머지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갈릴리도 북이스라엘인데 왜 사마리아 지역 결과와 같이 이방지역으로 안 되고 유다 지역 같이 유대인 지역이 되었는지요? 앗수르가 민족이동정책을 사마리아에서만 시행했나요? 바벨론 귀환포로가 갈릴리로도 갔나요?

-LA 김 집사

A: 한국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르호보암 왕 때 교만한 왕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려다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베냐민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의 아픔과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후에도 왕들과 백성들이 죄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중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 5세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죄로 인해 북쪽 앗수르에 의해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1차와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앗수르의 할라와 고산 하복과 메데 여러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 유다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렘30:3, 렘33:7).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그 후예는 나중 남쪽 유다의 포로들과 바벨론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파사왕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다자손 외에 앗수르 시대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백성들과 그 후예들도 섞여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에스겔 37:19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주로 살았고 이방 침략 많이 받아

앗수르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들이 조지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27,290명의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와 백성들을 앗수르로 옮겼고 앗수르에 살던 이방민족을 사마리아로 옮겨 함께 결혼해 살도록 인종혼합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로 온 새로운 이주자들이 그 땅의 사자(Lion)로 인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자 그 지방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때문이라고 믿어 여호와도 섬기고 또 그들이 섬겼던 각종 우상들도 함께 섬김으로 결국 사마리아는 혼합민족, 혼합종교의 2중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왕하17:29-41).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온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혼혈민족과 상종하지 않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그 뜻이 원형, 혹은 변방이라는 뜻의 갈릴(Galil)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나라들과 국경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이주해 살았고 북서쪽에 위치한 갈릴리는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주로 살았고 이방에 침략을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으나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갈릴리에 빛이 비취었다고 말합니다(사9장).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전도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집트의 비샤린(BISHARIN)

수단과 에리트리아 그리고 이집트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00만 명의 베자족. 이집트의 베자족의 수는 63,000명 정도이며, 아바브다어와 비샤린어를 사용하는 2개의 하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의 이름은 그들 종족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들 두 집단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고 단지 언어만 다르다. 그들은 홍해 주변을 따라 살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 나일강변과 그리고 룩소르, 카르낙, 아스완



의 고대 유적지 사이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도시들의 변두리에 있는 동굴에서 살기도 한다. 노아의 손자 구스의 자손들인 베자족은 4000년 이상 동안 현재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토착 아프리카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랍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이슬람 신앙을 따르고 있다. 베자족은 정수리에 머리 솟이 많기 때문에 "퍼지 워지스(Fuzzy Wuzzies)"로 알려졌다. 그들은 작고 힘이 세며 깨끗한 몸매를 가진 검은 피부의 코카서스 인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토착어인 베다웨어(Bedawye)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1언어는 아랍어다.

삶의 모습

비샤린족은 동물들, 특히 낙타를 돌보는데 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다. 홍해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비샤린족은 낙타들뿐만 아니라 양, 염소, 버팔로 그리고 소떼도 기르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히스바(hisba)"라고 불리는, 두세 가정 단위로 정착하며 우물 근처 사막을 향한 기름진 토지에서 산다.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다. 남자들은 수로와 관개시설, 땅을 일구는 일을 한다. 그들은 주로 면화와 사탕수수, 옥수수, 두라(이집트옥수수), 밀, 참깨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하며, 닭과 같은 가금류를 키우기도 한다. 소년들과 나이트 여인들은 양과 염소 떼들을 치며, 어른들은 낙타와 같은 보다 큰 동물

들을 돌본다. 마을에는 보통 수 백명의 주민이 있으며, 가옥은 진흙 벽돌로 만든다. 큰 마을에서 비샤린족은 아바브다족과 함께 살며, 벽돌 가옥이나 벽돌로 둘러싸인 텐트에서 산다. 모든 마을에는 남자와 방문객을 위한 구역이 있다.

큰 비샤린 마을에는 모두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서 함께 모이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공공 장소가 된다. 남자를 위한 또 다른 공공장소는 "케이마(kheima)"인데, 이것은 아랍어로 텐트란 뜻이며, 마을 회의인 "마즐리(majlis)"를 여는 장소다.

큰 마을 중앙에서는 여자들이 진흙으로 그릇과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시장에 내다판다. 그들은 또한 많은 종류의 바구니를 짠다. 남자들은 새끼를 꼬아서 밧줄을 만들고 또 바다 그물을 만든다.

아바브다족은 장거리 무역을 하며 그들 지역 안에 있는 주말 장에도 자주 간다. 시장 안에서 여자들은 실로 짠 물건들과 과일, 채소 그리고 가금류를 내다판다. 남자들은 가죽과 농산물, 지역 공예품이나 수입품을 사고 또 판다.

비샤린과 아바브다족은 자주 서로 간에 결혼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다수는 그들의 각자 종족 안에서 결혼할 것을 강조한다. 두 종족 모두 혼인서약을 포함해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이슬람 규율을 따르고 있다.

신앙

이집트의 베자족은 수단과 에리트리아에 살고 있는 다른 베자족보다 더 이슬람 정통파의 관습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는 무슬림이다. 비샤린족도 또한 "전통 이슬람"이라 불리는 관습들을 행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은 다양한 전통 미신들로 엮여져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 찬 눈초리"를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저주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지니(jinnis)"(동물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영)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믿고 있다. 그들은 악령이 병, 광기와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믿는다. 그들은 사악한 마술을 행하고 동물제물을 신성한 이교도의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샤린족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없으며 그들 사이에 알려진 기독교인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역자들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화 도구들, 보다 증진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짜이짜이족 한글 채택 10년...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짜이짜이족이 한글을 부족어로 채택한 지 10년이 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짜이짜이족 학생이 1000명을 넘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사용 언어가 700개가 넘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된 뒤 소수민족 언어가 급감했다. 짜이짜이족 역시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지난 2009년 훈민정음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글을 표기어로 채택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수업을 받지만 짜이짜이어를 한글 교재로 배운다. '안녕하세요?'를 인도네시아어로 쓰면 'Apa kabar?(아빠 까바르)'지만 짜이짜이어로는 '마ئم 빠에 올렌레'로 쓴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없어 양질의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 다.

지난 2010년부터 짜이짜이족 마을에서 한글을 가르쳐온 정덕영(58)씨는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면서도 "언어교육은 노출 빈도를 얼마나 늘리느냐와 연속성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혼자 교사로 나와 있다 보니 그 점이 가장 아쉽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씨는 2014년부터 지인과 동창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짜이짜이문화교류협회'의 후원을 받아 현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해서 레즈비언 커플 체외수정 허용 반대 시위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가 여성 동성애자 커플과 독신 여성도 체외수정(IVF) 등 난임·불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프랑스 전역의 보수주의자, 카톨릭 단체 회원들이 6일(현지 시간) 수도 파리에 모여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시가 행진에서는 프랑스 국가 정신인 '자유·평등·박애(Fraternite)'를 '자유·평등·부성애(Paternite)'로 대체한 구호도 나왔다.



프랑스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는 이들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규범 확립을 촉구하는 이들 사이 사회적 격론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프랑스에서는 IVF 시술 대상을 남녀 이성커플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독신 여성이나 동성애자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난임·불임 시술을 받을 때 공공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하원이 지난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상원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만큼 IVF 대상 확대와 의료보험 적용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시대 변화에

따르기로 했다. 임신을 원하는 프랑스 출신 독신 여성이나 동성애자 커플이 현행법 탓에 자국에서 IVF 시술을 받을 수 없어 이웃 나라로 넘어가 회당 수천 유로(수백만원 상당)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시술을 받는 현실도 고려됐다. 개정안 추진은 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의 구조를 해체하고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를 빼앗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40대 시위 참석자는 "우리는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아이들이 실험실에서 태어나도록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은 프랑스 경찰 추산 1만~2만명이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지방 곳곳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해 집회에 합류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실제 프랑스 전체 여론도 정부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신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같은 질문에도 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북정책의 폐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로 북·미 대화가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미국 언론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고정 레퍼토리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 결렬을 이유로 무기 실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술의 위험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는 WP에 "북한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앞에 놓인 매트처럼(북한에) 계속 당하는 상황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료 출신인 잭슨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실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 나선 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기보다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만 살필 뿐 실무협상 성과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상황을 오히려 지나친 기대를 갖고 스톡홀름 협상장에 나왔다는 분석도 계속됐다. 채드 오캐럴 코리 아리스크그룹 대표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판치 않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면 미국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스톡홀름 결렬 직후 낸 담화에서 "미국이 저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조·미(북·미) 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다음 행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은 미국의 정책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반응할 때 국영 매체를 통해 종종 과장된 주장을 펼친다"면서 "스톡홀름 협상장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한 것이 북한이 오랫동안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은 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수 킴은 WSJ에 "국무부가(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을 보면 미국이 합의에 대해 너무 열성적인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합의를 열망하면 판돈을 올리는 수법을 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로 비핵화 합의 도출은 더 험난해졌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두 정상간 합의에 대한 의존해 실무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하노이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WSJ은 스톡홀름 결렬은 화가 난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 시험을 할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무기 시험이라는 신경전을 펼칠 경우 북·미 대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복면금지법에 왜 격렬 저항?

홍콩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격렬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엄포에도 얼굴을 철저히 가린다. 이들이 복면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콩 시위대는 지난 8월 홍콩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1대를 넘어뜨리고 19대를 훼손했다. 시위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다. 이들은 가로등이 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해 사적 정보를 캐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에 분노한 시위대는 가로등 전선을 자르고 기둥을 톱으로 넘어뜨리며 항의했다.

스마트 기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사생활·개인 정보 감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말 홍콩에 설치된 50개의 스마트 가로등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가로등엔 카메라와 블루투스 센서가 탑재돼 있다. 이에 가로등이 시민들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활용될 거란 의혹은 자연스레 제기됐다. 시위에 자주 참석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면 미래에 중국으로 송환돼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로등에 찍힌 사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면 시민들은 분노했다.

홍콩 정부는 스마트 가로등이 교통, 날씨, 공기 질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 주위만 찍는다고 해명했다. 가로등에 안전인식 기능은 없으며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건네지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며 시위대의 우려를 무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350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해명에도 시민들은 추적을 피하려 복면 착용은 물론이고 임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시위 장소 이동 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의 우려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미 중국에서 감시 카메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돼 있고, 충분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2억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8곳이 중국 도시다. 중국 당국이 CCTV로 반정부·반체제 인사를 식별해 구금하는데 악용해왔다는 의혹 또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한번 CCTV를 설치하면 개인 정보가 날날이 정부에 흘러들어간다는 점도 시위대 우려에 불을 붙였다. BBC는 2017년 중국 경찰이 AI CCTV 카메라를 활용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얼굴과 정부가 가진 정보와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개개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 카메라는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도 파악하고 있으며 자주 어울리는 지인들과 친척들의 정보도 저장하고 있었다. 일부 카메라는 얼굴을 인식한 뒤 나이를 예측하고 인종, 성별, 키까지 알아냈다.

심지어 홍콩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이미 중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활동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활동가 벤터스 라우는 지난 8월 ABC뉴스에 "홍콩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굉장히 우려해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시론

<3면에서 계속>

절대기준을 가져야할 교회도 상대평가를 선택함으로써 결국 자기중심의 성경해석으로 상대방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의로운 외침을 가지고 이 시대를 꾸짖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난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결국엔 의로움을 인정받은 음을 들추어내어나의 의를 외치기도 하고 반면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서도 어린양처럼 침묵하신 예수님을 비유하며 교회는 무조건 잠잠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경은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상대적 평가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서지 않는 한 상대방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죽음과 충돌하고 끝나게 될 것을 이미 말해주었다. 무겁다. 한국의 상황도 무겁고, 미국과 전 세계의 상황이 무겁다. 갈수록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무게에 짓눌려버리는 세상이다.

독자들은 이 무거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 즉 믿음의 시각은 "현재 이 세상의 사실들이 일의 결국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국은 그 밖, 너머에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한 비슈켄슈타인의 고백을 기억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되뇌어 본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하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3-14).

연속성과 불연속성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한다.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과거의 영향이 어떻게 지속 또는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세상의 일은 대부분 새로운 상황과 부딪히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세 르네상스도 예외가 아니다. 이탈리아 국가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한 르네상스는 형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중세의 틀을 깨고 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탄탄한 부와 군사력을 누리던 이탈리아가 새롭게 등장한 주변 강대국의 수하에 놓이면서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르네상스도 함께 쇠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르네상스의 기본정신, 즉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수용하려는 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내용을 답습하려는 시도가 아닌, 자국의 토양에 맞추어 자체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특징이 생겨났다. 특히 화란과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된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는 남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색다른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예술과 종교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에 활동 하였던 예술가들은 인간의 몸이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간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예술가의 기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작품들은 대부분 성경의 내용과 연관된 주제들이었다. 외면적으로나마 종교적 형태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북부 유럽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속성이 강하였다. 대표적인 화가로, '기도하는 손'으로 널리 알려진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를 꼽을 수 있다. 149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하여 머물면서 르네상스 미술을 접한 그는, 귀국 후 독일에 새로운 회화양식을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1505년 두 번째 베네치아를 방문하여 르네상스 대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뒤 뒤르네르크 시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그림과 판화, 그리고 조각은 독일의 고딕과 남부 르네상스의 조화를 통한 독특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뒤러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면서도, 주로 종교적인 내용을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개혁사상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화란의 경우는 달랐다. 이곳 예술가들은 남부 르네상스와 달리 짙은 종교적 성향 대신, 종교적 상징을 세속적인 풍경에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로써 화가들은 주로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화폭에 담으려 했다. 나아가서 세속적 풍경화 와 정밀화 작품이 그들의 주변 관심거리였다.

제라드 후르트

비록 화란의 예술가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달리 세속적 작품에 더욱 관심이 있었지만 화란을 중심으로 인문주의 학문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북부 르네상스의 강력한 종교적 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본능적 자유를 강조하였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달리, 향후 북부 유럽 르네상스가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맞았던 중세 교회의 영적 각성과 도덕적 개선을

1370년경 그의 설교가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평신도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으나 성직자들은 그를 배척하였다. 그럼에도 후르트는 항상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주관하는 새로운 영적운동이 교리적으로 정통성을 잃지 않아 반드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심

후르트를 추종하던 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내적 자아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와 개인적

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더욱 영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다.

공동생활형제단이 교회역사에 끼친 가장 커다란 공헌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에 있다. 교회는 물론 주위에서 공동생활형제단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devotio moderna를 기본 과목으로 하고 인문주의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devotio moderna가 함께 만나 조화를 이루면서 강력한 개혁운동의 양상을 갖추게 되었다. 진정한 경건은

가 실시한 교육이 낳은 귀한 열매 중 하나이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형제단 회원에게 devotio moderna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교육받았다. 그러므로 후르트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저술한 것이다. 이 외에도 아 캠퍼스는 후르트를 포함한 형제단에 속했던 인물들의 자서전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려 하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전체 4부 즉,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면', '내면을 향한 유익한 권면', '주님만이 주시는 내적 위로', 그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 됨'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인간의 타락과 이에 따른 무능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은혜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누가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이 진정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이다. 즉 분명한 회심의 경험을 한 자이다.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devotio moderna는 북부유럽 르네상스의 전형이 되어 널리 확산되어갔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독일의 15세기 인문주의자들은 나뮈 16세기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인문주의와 기독교신앙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확신하고, 공동체제단의 교육 방침을 수용하였다. 초기 독일인문주의자들은 devotio moderna를 변호하거나 친히 그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종교개혁 전야에 활동하던 인문주의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중세 로마교회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를 방문하였던 요한 르롤린(Johann Reuchlin, 1455-1522)은 독일교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연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르롤린은 교회와의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에, 종교개혁을 지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로마교회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특히 루터와 함께 했던 종교개혁자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thon, 1497-1560)이 르롤린의 조카였다. 대부분 독일 인문주의자들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의적 전통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독일의 종교개혁은 국가주의적 요소와 함께 추진되었기에 독일 인문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북부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이 종교개혁시대에도 연속된 듯하다.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유독 화란을 중심으로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이 크게 발전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강조된 경건과 삶을 중시한 개혁자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6)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중시하는 개혁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공동생활형제단 (Brethren of the Common Life)'을 창시한 제라드 후르트(Gerard Groot, 1340-1384)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였다. 후르트는 탁발수도승과 달리 구걸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켰고, 그 대신 내적경건을 위해 직물제조와 문서복사 등의 노동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도록 하게 하였

위해 경건의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세교회의 전통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

형제단 창시자 후르트 'devotio moderna', 북유럽 르네상스 핵심사상 돼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devotio moderna 만나 강력 개혁운동화

는 인물이 있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후르트는 젊은 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시간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의 회심은 한 개인의 경험 이상이었다. 많은 유럽인들의 신앙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회심 경험 이후 그는 세속적인 삶조차 포기하였다. 자신의 집을 가난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개방하고, 본인은 2개의 방만 사용했다. 많이 지닌 것이 영적 삶에 방해가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교회법에 정통한 자였다. 그럼에도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집사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였다.

다. 이 공동체가 초창기에는 비밀스레 모였으나 1390년경부터 화란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후르트는 인구가 방향성을 상실하였고, 교회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확신했다. 이런 영적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devotio moderna(오늘의 헌신)'을 선택하였다. 이는 향후 북유럽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적 사상이 되었다.

devotio moderna의 핵심은 '진정한 회심'이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영적인 일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범이 항상 공동생활형제단의 삶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과 실천의 중심에 있었다. 회심이란 한순간이 아닌 성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이런 경건생활이 성직자들만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식하고, 평신도들도 성경뿐 아니라 고대 저자들의 경건서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무엇이 활발해지면서 북유럽에 부유한 자들이 많아졌다. 경건을 위해 책을 소유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여성들까지도 책을 읽으려는 열망이 더해졌다.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는 별도로 인쇄소를 세워 적극적으로 devotio moderna를 확산시킨 결과, 화란의 주요 도시의 종교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북부 유럽 르네상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à Kempis, 1380-1471)는 형제공동체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기타지역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bori, Mongo, Bxk, Benelux, Boston, Salt, etc.

리더십 코멘터리 (9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가을은 생각하는 리더를 원한다

그 많은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판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다'라는 말의 기원은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가을의 정취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우리 주변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두 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내일 아침 이것으로 반찬을 하리라' 생각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없어졌다. 그런데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신발장을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바

는 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소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내일과 미래가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되라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것은 윌리스 H. 캐리어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을 하고 난 후 그가 성공한 비결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지혜의 법칙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심하는 쪽으로 계속 추리하게 된다. 이렇게 의심으로 이어지는 생각 유형을 아담타입이라고 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아담과 같은 유형이다. 또 하나의 생각은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 타입이라고 한다.

인간적인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된다.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는 범사에 행복하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계속 부정적으로 의심하면 부정하고 의심하고, 마지막에는 우울증에 빠져 절망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죽는다. 이런 사람은 영영 구제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리더는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위대한 리더이다.

생각의 4가지 원리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생각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현재보다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긍정적인

리더는 체념, 자포자기 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생각의 4원리: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깊이 멀리

쁘게 허겁지겁 살다보면 행동은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인생길의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만 남고 생각은 빠져나간 것이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리더

급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는 체념이라는 병이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한계점과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제 정신으로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체념과 포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고난의 길은 가끔씩 지혜롭게 피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 이 현실 속에 지혜자의 참 뜻이 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깊이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 속에서 열린 문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행동하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았는가? 생각했지만 후회와 절망과 낙담뿐인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되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절대자를 생각하라. 인생을 비극적인 길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선물한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리더가 될 것이다.

생각의 법칙

생각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하고 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생각이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리더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소극적인 생각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셋째,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진리를 깨운 자들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을 개발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 생각이 인생길을 열어가는 지혜의 샘이 되어 행복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넷째,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라.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 종말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지만 끝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이 깊은 가을의 길목에서

가을의 성숙함이 성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며 세월을 맞이한다.

행복에 관련된 모든 언어를 나열해서 밤새 달려가도 끝이 없어질 것 같은 내게 산다는 막중한 의미를 안겨다줄 일이 있을까? 사도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인생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

애써 태연한 채 하려해도 어느새 힐끔힐끔 사람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몇 십수 년을 목회해왔지만 아직도 나는 사랑의 시린 갈증으로 기-인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가 있다. 때로는 총알처럼 달려도 모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고고하고 조금은 더 남보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모의 길에 순응하면서도 가끔은 진한 커피 한잔의 우정을 나눌 친구가 그림과 내 마음을 한 움큼 떼어가 버릴 그런 만남이 간절하다

그렇다. 인연이라는 만남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만 마음 둘 곳이 많지 않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일이라. 살면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삶일까? 삶이 버거워 휘청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여기까지 달려와 준 성도님들이 고맙다. 보기만 해도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자매님이 시장 본 것들을 싸들고 교회 문을 들어서는 모습에 또 가슴이 아려온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수술한 부위를 움켜쥐고 밖에 나와 서 계시는 집사님을 보니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따지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진정 품성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덩석 나누어 줄 줄 알고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해도 때여 쉼이기는 이 작은 사랑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며 하찮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우리의 모난 가슴들 속에 치유가 뭉클뭉클 일어나리라.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됄을 위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다. 이 아름답고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입을 써서 영혼을 살리는 일로 분주한 우리가 되어 가을을 이파리처럼 아름답게 철이든 깊은 가을의 길목이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p> <p>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말씀생생(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52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10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6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ml.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c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수요일예배: 오전 9:45(10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h.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핍(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10시 50분 민 17장 장막 "이름만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족려 짐을 위하여 내 이름의 지팡이에 울고 손이 닳아 떨어지지 않게 하라" Tel. 213) 924-3340, pimisio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66-4400 Fax. (718)86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만나는 상황에 대한 해결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신속하게 변화해 가는 세태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가이드북들이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궁금증을 갖

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사업가나 학자나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심지어 목회자일 지라도 가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마음을 쓰는 경

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여 별의 별 질문을 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를 때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

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여 그 답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기도해 봅시다’라고 대답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인생과 목회사역을 경영하시니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아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수9:14) 결정하여 두 고두고 후회하는 실수를 하여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까’를 물어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일단의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회 잘하는 비결’을 물으니 그분은 엉뚱하게도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잘 됩니다. 죄를 지으면 잘 안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렘5:25) 오래 끌리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고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겼도다”(시7:12).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용서와 평안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26).



예장고신 총회를 방문해 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KAPC임원단 한국 5대 장로교총회 방문

대신(MOU), 합신(선교MOU), 필리핀아시아노회도 방문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임원단들이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의 교단 총회를 방문하고 한국 총회 임원들을 만나 교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총회장 양수철 목사와 서기 한일철 목사, 총무 김영기 목사, 회계 김원도 장로, 세계선교회 이사장 조문휘 목사 등 5명

은 친선사절단 자격으로 한국 5대 장로교(합동, 합신, 고신, 대신, 개혁신) 총회에 참석해 인사하며 깊은 교제를 나눴다.

특히 대신총과는 교단적으로 MOU를 맺었으며(선교 포함), 합신총과도 선교 MOU를 맺는 성과를 맺었다.

또 이 기간 중에 본 총회에 속한 필리핀 아시아노회를 방문해 예배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 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선교적인 교회들로 본 교단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미국내 최대 한인 장로교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필리핀, 뉴질랜드로 폭넓은 지역에 교회들이 설립돼 있다.

(기사제공: KAPC 총회)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열린다.사진은 지난 1월25일에 열린 서부총회 단체사진

제 1차 미주한인 CBMC LA대회 열린다

17-19일 가든스위트 호텔, 주강사 공병호 박사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CBMC 총회장 황선철 장로) 서부총회가 주최하는 제 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주강사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여러 초청 강사와 사역자들이 이끌어간다. 황선철 총회장은 “기독교인

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듯이 섬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최초로 LA에서 미주한인 CBMC대회를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적인 사업 경영 방법도 배우하는 뜻 깊은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주강사 공병호 박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영향력 있는 책을 다수 집필한 유

명한 기독교 경영인이다. 이번 행사에서 그는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외에 초청 찬양밴드팀의 연주와 기도 시간도 진행되고 간단한 다과도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는 미주한인 CBMC의 15개 지회가 모두 참여하며 내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독교실업인회 CBMC(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는 1930년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의 소규모 기도모임으로 시작돼 현재 150명을 웃도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일터에 전하는 사역공동체다.

단체는 대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유익한 행사인 만큼, 기독교실업인, 전문인, 회원들과 가족, 성도 지인들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예약은 필수다.

▲예약문의: (213) 773-5779 신정현 사무총장



한인 암 검사 독려행사...무료치료 안내

시더스사이나이와 이웃케어클리닉 한인교회 순회

한인들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주류병원과 한인교계 및 단체가 뭉쳤다.

10월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National 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맞아 시더스사이나이 사무엘 오스진 종합 암 연구소(Cedars-Sinai Samuel Oschin Comprehensive Cancer Institute, 이하 암센터) 산하 건강형평성연구소(Research Center for Health Equity, 이하 연구소)는 한인교계 및 단체와 함께 ‘한인 암 검사 독려행사’를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박)에서 열고 한인들에게 암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의 줄 수라니 커뮤니티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3-5월 LA와 사우스베이 지역 8개 종교기관에서 열린 암 예방 세미나에서 ‘LA 암과 의료서비스 설문조사(CHILA)’를 진행한 결과,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은 미국 내 타인종 및 타민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수라니 디렉터는 “특히 검사를 받지 않는 주요 이유로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해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한 의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인 287명이 참여한 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유방암 검사 권

고 연령인 45세 이상 여성 131명 중 2년 이내에 유방암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힌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이 40세 이상은 64%, 50세 이상은 68%와 비교해 크게 저조한 것이다.

대장암 검사의 경우 유방암 검사율보다는 높았으나 미국전체나 캘리포니아의 검사율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설문에 답한 50-75세 남녀 196명 중 대장내시경(10년 이내)이나 대변검사(1년 이내)를 검사권고기준에 맞게 받은 한인은 66%로 나타났다. 이는 CDC가 발표한 2016년 미국 성인 검사율 67%, 캘리포니아 주민 검사율 71%보다 낮은 것이다.

애린박 소장은 “암, 특히 유방암은 정기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높고 완치 가능성도 크다”며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등 자격이 되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및 치료도 정부지원을 받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는 암 검사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해 한인단체 및 종교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연

구소는 유방암 인식의 달인 10월을 ‘행동하는 10월’로 정하고 △12일 새누리교회 △13일 동양선교교회 △20일 주님의영광교회 △26일 LA 온누리교회 △27일 성바실한인천주교회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또는 독감 예방접종 행사에 참여해 암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유방암 검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센터는 건강전문가 양성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1인 기준 월 2,081달러, 2인 2,818달러, 3인 3,555달러, 4인 가족 월 4,291달러)를 넘지 않으면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 한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427-4000



그레이스미션대학 산상기도캠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 산상 기도캠프

그레이스미션대학(GMU 총장 최규남 박사)은 Yucaipa에 위치한 갈보리수양관에서 10

월 4일과 5일 양일간 산상 기도캠프를 가졌다. 저녁 기도회와 아침 말씀, 교

수님과 의 특, 기도, 나눔, 캠프 파이어,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GMU의 학위과정은 신학박사, 기독교상담학박사, 목회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교차문학석사, 기독교상담학석사, 선교학박사, 교차문학철학박사 8개 과정이 있다.

GMU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과 보내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입학관련 문의는 (714)525-0088, www.gmu.edu admissions@gmu.edu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MF선교회

CMF선교회 선교사 10월 정기예배

CMF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는 5일 오후 5시 CMF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10월 정기예배를 드렸다.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김철민 장로 인도로 김영호 선교사(예멘) 기도, 하대식 선교사(요르단)의 설교로 진행됐다. 하 선교사는 ‘아람의 회복과 요르단 선교’(사60:4-8, 마3:13-17)의 제목으로 “요르단에서는 90% 이상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는 역시 이슬람 종교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모델이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으며 선교의 모델을 보이셨던 분이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한 선교사(태국)와 방익수 목사(사랑의방주교회), 그리고 Sam Yoo 전도자가 각각 간증을 하고 채형병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를 드린 뒤 10월 정기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제 9회 사우스베이교회연합찬양제에서 참석한 모든 단원들이 한미음으로 마지막 곡을 선사하고 있다.

제9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제 9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찬양제가 10월 6일 오후 5시 30분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원패밀리교회, 한인소망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나성급란교회, 토렌스선한목자교회, 남가주살롬교회 Ensenada Mission Choir, 사랑의부부합창단, 토렌스조은교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박숙희 선교사의 서곡으로 시작된 찬양제는 이상훈

목사(사우스한인목사회 회장)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으며 이어 참석한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은 주님의 사랑과 이민자들의 꿈과 소망을 널리 전하며 은혜롭게 가을밤을 수놓아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에는 참석한 모든 찬양팀이 함께 무대에 올라 ‘믿음 안에서 하나’를 불렀으며 김우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제 33회 장학기금 찬양축제

동부개혁장신교회(학장 김성국 목사) 제 33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 축제가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열린다. 동부개혁장신 합창단은 이번엔 연주 및 예배용 뮤지컬 '알렐루야'를 공연한다. 지휘 윤원상, 반주 나운주. 일정은 6일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 13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일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문의: (718)463-7163

뉴욕청소년센터 후원 음악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후원 음악회가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30분 열방교회에서 열린다. 케리그마남성총창단(단장 김요한) 주관으로 열린다.

▲문의: (718)279-1313

목회자 자녀 장학생 모집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가 목회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4개주에서 사역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대학생 자녀 또는 해당 지역내 대학에 재학하는 목회자 자녀로 일인당 1천달러씩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주보, 부모의 목회증명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대학의 학비보조 내역, 연방학비보조 신청서 사본과 추천서 2부 등이다. 온라인(njchodae.org)에서 신청서를 받고 모든 서류는 이메일(scholarship.committee@njchodae.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951-5852송우영 집사, 390-0043최중국 집사

선관위 세칙 발표, 총회 11월 25일

뉴욕목사회 47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47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가 10월 3일 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려 사업보고와 행정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선거에 대해 발표했다. 뉴욕목사회는 6월부터 9월까지 △새힘장로교회 임당예배 △킹덤처치 세미나와 △교협과 함께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목회자세미나를 협력했으며, △김형훈 목사 부고 △라선옥 목사 부고 △이병홍 목사 은퇴감사예배 등에 참석했다.

회계는 전반기 이월금 2,063달러, 총수입 4,785달러, 지출 5,895달러, 잔액 958달러로 보고했다. 또 선관위(위원장 김원기 목사) 세칙으로 11개의 조항을 발표했다. 이 중 1항과 2항의 회장 부회장 자격은 모범대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 3. 회장 부회장 후보는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4. 회장 임후보자 공탁금은 2000달러, 부회장은 1000달러. 5. 모든 임후보 제출 서류에서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6. 회장 부회장 후보는 금고형을 받았거나 재판 기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7. 선거운동기간중 회장, 부회장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단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후원금기부, 식사대접, 회비대납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이메일, 카톡, 전화, 서신으로만 가능하며 불법 정황이 증거되면 당선 후 1개월내 선관위에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8. 임후보자는 선거당일 3분 이내 소견 발표할 수 있으며 개인 기자회견은 금지한다. 9. 선관위는 임원 중 총무, 서기, 회계, 수석총무 1인, 선관위원장, 선관위에서 선정한 2인 총 7명으로 구성되 임우너 중에 회장, 부회장 후보로 임후보 할 경우 후보등록 이후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10. 감사도 사전등록을 받아 총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에서 선출한다. 등록자가 없을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11. 회원의 투표권은 현 회기를 기준으로 3년 회비가 완납되어

회에서 선출한다. 등록자가 없을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11. 회원의 투표권은 현 회기를 기준으로 3년 회비가 완납되어

야 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말씀 이만호 목사, 합심기도 마바울 목사(미국과 한국, 뉴욕교계를 위하여), 광고 박시훈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는 "속상하고 피곤할 때"(시143: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힘들고 피곤한 목회와 삶이라도 목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자"고 강조했다.

47회기 뉴욕목사회의 남은 일정은 11월 14일(월) 성극 관람이 있으며 정기총회는 11월 25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46회기 임후보자, 감사 김주열 장로, 평신도 부회장 손성대 장로, 회장 양민석 목사, 부회장 문석호 목사(왼쪽부터)

"동일교단 3년내 임후보할 수 없다"

뉴욕교협 46회기 임후보자 정견발표회서 논쟁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46회기 임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10월 2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의 기도 후 회장 정순원 목사가 인사했으며, 각 후보들의 소견발표가 진행됐다.

발표한 후보들은 △회장 후보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 △목사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후보 손성대 장로(퀸즈한인교회) △이사회 추천 감사 김주열 장로(목양장로교회) 등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임후보 할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석호 부회장 후보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석호 목사는 46회기 정순원(나사렛) 현 회장, 45회기 이만호 목사(순복음), 44회기 김홍성 목사와 동일한 ARPC 교단 소속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뜨거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회장 후보 양민석 목사는 소견발표를 통해 46회기의 방향을 소개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가치인 Together(함께)와 Connection(연결)이라는 개념으로 회기를 이끌어 나간다"며 5가지 방향성을 소개했다.

①교계 연합을 위해 보다 많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소외된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실제 조직과 행정을 보완 운영 ②1세와 2세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기 위한 장 마련-2세 지

원 검토해 기회 제공한다. ③대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 동참 ④목사회와 연계해 목회자의 권익과 각 교회 보호에 최선 ⑤개교회를 돕는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양민석 목사는 질문에 △특별위원회는 비상위원회의 개념으로 경험과 목회를 떠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증경회장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역 목사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반위원회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작은 교회 돕기는 교회적으로 실행할 것을 교인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목사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는 "부회장의 위치나 소명이 회장을 돕는 것이기에 회장 후보가 맡한 5가지를 염두에 두고 회장을 보좌해 나가겠다. 부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각 교회 목회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협의 좋은 전통은 잘 답습하며 시대적인 변화가운데 현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책임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평신도 부회장 후보 손성대 장로는 "평신도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차기 회장이 추진할 5가지 사업, 교계의 화평과 부흥,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감사 후보 김주열 장로는 "투명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인사했다. 2인의 목사 감사는 총회석상에서 선출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이상원 담임목사(오른쪽 다섯번째)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님 닮아가기...하나되는 교회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임직식, 장로2명 등 10명 임직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이상원 목사) 설립 35주년 기념 임직식이 10월 4일 오후 5시 30분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장로장립 2명, 명예권사추대 3명, 권사취임 3명, 안수집사 취임 2명 등 10명이 임직했다.

특히 이번 임직은 미주성결교단이 여성 장로 장립을 허가한 후 동부지방에서 처음 여성 장로가 된 정수정 장로가 대표로 답사했다.

롱아일랜드성결교회는 1984년 김석형 목사(원로)가 개척한 후 2017년 2대 담임목사로 이상원 목사가 취임했다. 이번 임직식은 이상원 목사 부임 후 첫 번째 임직식으로 임직자들은 개척멤버이거나 15년 이상 교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된 직분자들이다.

1부 감사예배 설교는 황유선 목사(동부지방회 회장, 버팔로 은혜교회)가 에서 예배소서 4장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황 목사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를 하나로 이끄는 길"임을 강조했다.

2부 임직식은 황규복 장로와 박찬일 장로의 공동사회로 장로 2인(정수정, 이주수) 임직식과 명예권사 3인(김영삼, 김영애, 이옥배) 추대식, 권사 3인(이혜영, 임희연, 황봉순) 취임식, 그리고 집사 2인(박성식, 조태은) 안수식을 각각 진행했다.

3부 축하와 인사에서 답사한 정수정 장로는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기록하고 계신다는 목사님의 말을 들은 아들이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화를 냈다는 예화가 늘 기억에 남는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축사는 조승수 목사(뉴욕감찰장, 퀸즈교회)가 권면은 황하근 목사(전미주성결교회총회장, 뉴욕소망교회)가 했으며 김석형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교적컨퍼런스에서 첫날 저녁 부흥회에서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찬양대 '하모니'가 찬양하고 있다.

"선교적교회 컨퍼런스 2019"

(1면에서 계속)

첫날 저녁식사 후 열린 프리젠테이션 시간 강사로 나선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는 자신의 신앙여정을 소개하며 "8년 만에 돌아온 플러싱 지역이 더 이상 한인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다민족 목회의 비전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사역자들과의 만남, 지난달 새생전 착공예배, 킹스아카데미 등은 모두 선교적교회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며, 선교는 마지막이 아니고 그들을 예배케 하는 것"이라며 "선교적교회는 고난의 자리에서 싸운다. 선교적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찬양대인 '하모니'가 참석해 부흥회 설교(김병삼 목사)에 앞서 각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찬양하고 마지막에 영어로 함께 찬양해 참석자들의 격려박수를 받았다.

컨퍼런스는 박종순 목사(한국 총신교회 원로)를 강사로 교회예배를 드리고 김병삼 목사

(Missional Church In & Out), 빌황 G&M재단 대표(성경대로 성경읽기), 이상훈 미성대 총장(Re_Think Missional Church)이 강의하고 저녁식사 후 프라미스교회와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의 프리젠테이션이 있던 후 김병삼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했다.

둘째 날은 박동건 목사(Missional Pathway1), Jim Singleton 1, 2(통역 김정훈 목사), 10분 스피치(목동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 청주상당교회 안광복 목사), 워크샵/4개 그룹(신학생/정삼희 교수, CBMC/유근재 교수, 운영위원회/김병삼, 양춘길, 일반목회자/이상훈 총장)이 있던 후 저녁식사 후에는 M. C. Talk(지성업, 안광복, 황성수/이상훈) 및 저녁부흥회(설교 양춘길 목사)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양춘길 목사(Missional Pathway2), David Zimmerman, Robb Hattem(통역 박동건)의 강제가 있는 후 결단과 파송-공동기도회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성보 목사 등을 중심으로 목사합창단을 구성하고 첫 연주회를 가졌다.

담임목회자들의 찬양 연주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음악회는 웨체스터연합교회 문현호 지휘자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이현주 반주자의 반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밖에는", "주님", "주님 찬양 하리라",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침자가에 달리신 예수", "성도들의 행진" 등을 뛰어난 하모니로 찬양했다.

특히 지난 6월말 은퇴한 박효성 목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솔로 순서를 담당했다.

이날 소프라노 박정원과 정인영 지휘자가 9년 전 창단한 '아이소리모아 어린이합창단'이 특별 출연했다.

웨체스터목사합창단 단원들은 총 12명으로 다음과 같다.

노기송(뉴욕새예루살렘교회), 노성보(웨체스터장로교회), 박효성과 송인규(뉴욕한인제일교회), 김홍선(새은교회), 김종권(웨체스터한빛교회), 전구(웨체스터연합교회),



웨체스터목사합창단 제1회 연주회를 마치고 단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최기성(담스페리한인교회), 이풍삼(한인동산장로교회), 안성국(뉴욕능력교회), 임일송(뉴욕

백민교회), 허경열(뉴욕웨체스터선교회)(이상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제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 제1회 연주회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 제1회 연주회가 10월 6일 오후 6시 웨체스터장로교회(담임 노성보 목사)에서 열렸다.

웨체스터 지역 목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주제로 열린 연주회를 시작하며 노기송 목사(웨체스터교협 회장)는 "노래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광고후 마침 기도를 한 최기성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다고 재확인했다.

웨체스터 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자체 교협을 구성하고 목회자들의 모임, 연합부흥집회 등의 연합사업을 해오다 이번 예교문 박효성 목사와 단장 노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 주제 제 26회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세미나

제26회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세미나가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7일과 8일 양일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나는 사모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정삼숙 사모(하남성안교회)는 "엄마들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는 사모들"이라고 말했다.

정 사모는 "사모들이 예수의 정신과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며 "사모의 가치는 기도의 능력이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기도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는 목사와 같은 비전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가 없는 사역과 사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제26회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다"고 강조했다.

사모와 청지기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어떤 곳에 살든지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ziger로 세워주셨다"라며 "하나님의 법칙은 △구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받는다 △믿는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등이며 이 다섯 가지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그것만 갖추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피 목사는 "청지기 삶을 감당하는 자들은 실력, 환경, 경

험 등이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리인과 대리인으로 일꾼으로 자신과 타인, 물질, 복음을 관리해야 한다. 자신에게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다. 타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잘 되게 축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강의는 한기홍 목사가 '행복한 사모가 됩시다(1)', 저녁강의는 박태남 목사(정릉 뽕엘교회)가 '장막 밖으로 나오라!', 설동욱 목사(예정교회)가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모'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둘째 날은 박태남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척하기!', 설동욱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드는) 사모', 정삼숙 사모가 '해피담 이야기', 한기홍 목사가 '행복한 사모가 됩시다(2)'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를 맡은 KAPC 남가주노회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는 일꾼 되라" 성화장로교회 장로·권사 임직 및 원로장로 추대식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10월 6일 오후 4시 임직식을 갖고 윤조연, 오현숙, 정정희 시무권사 임직, 성열웅 시무장로 장립과 함께 이효영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다.

임직식에 앞서 이동진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김덕균 목사 기도, 최동진 목사(남가주노회장/샌디에고반석장로교회) 설교, 축도 강영석 목사(성화교회 원로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동진 목사는 '귀히 쓰는 일꾼'(딤후2:20-21)이란 제목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교회"라고 전제하며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의 그릇을 주셨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에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 좋은 일꾼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새롭게 세워진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당회장 이동진 목사는 새롭게 세워지는 권사들과 장로, 교우들의 서약을 각각 받은 후, 권사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드리고 시무권사를 임직했다.

신임 성열웅 장로는 참석한 노회 목사들의 안수기도를 받은 뒤, 악수례를 마치고 시무장로로 세워졌다.

한편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온 이효영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이항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는 "세워진 일꾼들은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바란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모든 예배와 교회모임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은 담임목사에게 순종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권면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는 세워진 임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모든 모임과 예배, 교회 일에 빠지지 말고 늘 성도를 칭찬하며 빠지지 말라, 그리고 따지지 않는 순종과 섬김의 종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열웅 장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분 주셨는데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화장로교회는 15801 Brighton Ave. Gardena에 있으며 자세한 것은 (310) 515-11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에서 임직받은 이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장로 2명 권사 6명 총 8명 임직 새일교회 설립 8주년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새일교회(담임 정병노 목사)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가 6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정병노 목사 인도로 열린 이날 1부 예배는 박만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새일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양종석 목사(대양교회)가 '패러다임이 변화'(히4: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방식, 주장이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임직받은 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 성도들과 담임목사의 중간자 위치에서 목사와 성도의 눈높이에서 함께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천국

에 들어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자를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향기 풍기는 귀한 직분자 성도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 호명, 서약, 임직자 안수기도, 공포로 이어졌으며 3부 권면 및 축하 시간은 최순길 목사(LA미마누엘교회)가 권면했으며 임직패 수여, 피아노트리오의 임직축하 특주, 결단찬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조하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이날 임직 받은 자 명단이다.

△장로: 이현기, 장재광 △권사: 박진희, 손영희, 이순영, 장그레이스, 차미선, 최현숙. (박준호 기자)



시온복음선교회 33주년 기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숙자, 3개월 훈련 받아야 일상회복 시온복음선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

시온복음선교회(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 창립 33주년 기념예배가 5일 오후 3시에 열렸다.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간호장교시절 주님을 만났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30년 전부터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현재 LA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며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동안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통해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하게 하면서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숙자 중에는 마약과 알코올중독자들이 많다"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맑은 공기를 쉰다는 것이 중독자들에게 좋다"고 말하고 "우리 몸이 성전이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것"이라 말했다.

정영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33주년 기념예배는 태김 형제가 특송했으며 진명은 목사(본선교회 회계)가 사업보고 했으며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영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본 합창단원들이 정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HYM청년연합집회

HYM(대표 더글러스김 목사) 청년연합집회가 12일(토)와 13일(주일) 양일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살전2:4-10)'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의 강사는 더글러스김 목사이며 집회시간은 저녁 7시.

▲문의: (714)393-5135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컨퍼런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2019 소망컨퍼런스가 '여러분 죽음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주제로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977-4580

LA온누리교회 무료혈액검진행사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유두고미니스트리는 무료혈액검진행사를 13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다. 혈액 검사 결과는 26일 오후 4시 LA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건강세미나에서 전달 받을 수 있다.

▲문의: (978)473-4256, (213)926-8018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도서후원요청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회에서는 교민들에게 책도네이션을 요청하고 있다.

영어나 한국어 서적, 교육, 종교 및 일반서적 등 장르에 관계없이 도네이션을 받고 있다.

▲문의: (323)573-6666 김영애

이현진 작가 개인전

이현진(ANC온누리교회 이진형 목사사모) 작가의 첫 개인 전시회가 15일까지 LA 리앤리갤러리에서 열린다.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이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출애굽', '홍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등 모두 성경속의 작품을 그린 회화작품이다. 리앤리갤러리는 3130 Wilshire Bl. #502 LA 이다.

▲문의: (213)305-1698

재미있는 iT 10/12 토요일특강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앱 사용 토요일특강이 에나하임과 LA에서 개최된다. 이날 강의는 특히 기본앱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말로 명령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강의한다. 에너하임: 9시-12시 주님의손길교회(2275 W. Lincoln Ave Anaheim). LA 오후 2시-5시 트리니티 유니버시티(2333 Beverly Blvd. #205 LA). 회비 30불.

▲문의: (909)971-7720



한인가정상담소주최 연례기금모금행사에서 본담소 이사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부금 후원, 옥션 통해 20만불 모금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한 제 36회 연례기금모금 행사가 4일 오후 6시 월서이벨극장에서 열렸다.

약 3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례기금모금행사는 한인가정상담소의 지난 36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금 후원과 라이브 옥션(Live Auction) 등을 통해 약 20만 달러를 모금,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6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한인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준호 기자)

"말랐던 우리 영혼 더욱 풍성하게" 제 16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제 16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단장 목경순, 지휘 조한우) 정기연주회가 6일 오후 5시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열렸다.

목경순 단장은 "찬양은 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며 "찬양은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우리의 마음을 강한 헌신의 결단으로 변화시켜주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주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정기연주회는 '알렐루야 즐겁게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 찬양곡과 '강 건너 봄이 오듯', '내 맘에 강물' 등 가곡을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갈보리성가단(지휘 강승철 목사), 살론발레단(지도 김혜영 전도사), 그리고 남가주장로총합창단(지휘 문광규 장로)가 특별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시국 기도회 · 집회...총 300만 운집

3일 광화문 · 시청, 한국교회기도의 날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12시부터 시청역 근처에서 한국교회기도의 날이 진행됐다.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망의 고비에 처했다”며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략은 알아도 무력감으로 반 포기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기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다 왕 여호

사밧은 절제절명의 위기 속,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 자리에 금식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성가대를 앞세워 찬송을 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국 17개 도·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체 임원들이 기도회를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여 이들은 “교회가 본디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을 두고 기도했다. 이 밖에 이들은 △유정자들이 정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 △국민의 정신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근간이 되기 위해 △북한 동포의 신안자유와 인권을 위해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성문화(동성애, 젠

더 등)가 퇴치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기 위해 △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했다.

끝으로 이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편 50:15)를 인용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와 국민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에는 한기총 주최로 ‘문제인 퇴진’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황교안,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발언에 나섰다. ‘조국 OUT, 문재인 퇴진’ 피켓은 시청 부근 시국 기도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동시에 보이며, 국민들의 민심은 여실히 드러났다. 주최측은 “대략 300만 명이 운집했다”고 추산했다.

다.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선 청소년 중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12.1%, 자살 계획 비율이 3.9%, 실제 시도 경험은 2.6%로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 이유는 학교 성적(41%) 가족 간 갈등(22%) 선후배나 또래와 갈등(8%) 경제적 어려움(2%) 등이 꼽혔다.

연구소는 한국에서 연간 8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의 우울증이 일반인의 7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목회 제언을 통해 “자살은 죄라는 인식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했다”면서 “자살이 주는 비참함과 유가족의 고통에 주목해 교회가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교사는 그동안 10개월의 투병 생활과 6차례에 걸친 감옥 생활로 한쪽 눈이 실명됐으며 강직척추염을 앓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10여명의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이 선교회 사역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손유태(남대문교회) 목사는 기조발제에서 “선교회는 말씀선포 교육 치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선교사는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의 구속과 수감, 출국 및 입국 금지의 수난을 겪으며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서 “마케도냐에서 성령의 은총을 깨달은 바울의 선교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황병배 협성대 교수는 “이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선 반드시 현지인 리더십이 비라카미 선교의 신학과 전략을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선교사는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구촌 백성들을 위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고 말씀으로 순교하겠다”는 내용의 선교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찬송가공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라며 “찬송가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 및 작사가들은 순수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회는 이어 “안타깝게도 11장, 41장의 경우 무상양도수록 원칙을 지키지 못해 2018년 7월 1일부터 통일찬송가에 수록된 곡으로 교체하게 됐다”고

“나라사랑정신 표출하되 하나됨 깨뜨려선 안 돼”

한교연, 검찰개혁 관련 시국집회 성명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열리고 있는 시국집회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을 안보 외교 경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방법론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과 기독교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표출하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

감독회장 직무대행 7개 재논의 요청안 논의

기감 제 33회 총회 장정개정위 제 7차 전체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가 지난 4일 감리회본부에서 제7차 전체모임을 갖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7개의 재논의 요청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모임에서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개정을 비롯해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 정관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안

건이 통과됐다.

이날 장개위는 지난해 만료된 신학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전년도 교회 경감감독회장 직무대행의 7개의 재논의 요청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모임에서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개정을 비롯해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의 법인

“후원한 성경, 전달 경로 한 눈에”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 초청 성경기증예식 진행

대한성서공회가 후원회원을 초청하여 성경 제본과 보급 과정 등을 공개했다.

대한성서공회가 후원회원을 초청하여 성경 제본과 보급 과정 등을 공개했다.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성경 제본시설 ‘바이블 코리아’를 견학하고 성경기증예식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후원회원들은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성경반포센터를 방문, 해외 성서기증사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 받고 지금까지 기증된 다양한 언어의 번역성경이 직접 컨테

이너에 선적되는 현장을 참관했다.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후원회원들에게 “복음전파의 최일선에서 성경보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하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전해지는 성경이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이날 성서공회는 서아프리카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의 사역에 대한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경출판 이론과 실무교육에 참석한 14개 나라 성서공회 총무들 중 아프리카권역에 속한 베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

룬, 차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말리, 세네갈, 토고, 아이티 등 12개 나라 총무들이 참석했다.

각국 성서공회 총무들은 소속된 나라의 성경보급 사역과 국가 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08년 성경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성서공회에 대한 기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370여만 부의 성경을 해외에 기증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집계한 결산보고에 따르면 전체 성경 지원규모에서 미국이 약 46%를 차지하고,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이 있고 있으며, 대한성서공회가 다섯 번째로 전체 지원 규모 가운데 약 8%를 감당하고 있다.

“말씀 선포와 교육 · 치유의 역사”

베트남 선교 30주년 심포지엄 개막

베트남은 1975년 통일과 함께 공산화가 됐다. 많은 목회자들이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숙청을 당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명목상 전도가 가능해졌다. 허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됐지만, 베트남 북부 지역에선 종교기관 설립은 물론이고 전도하는 것조차 여전히 어렵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된 베트남 선교가 30주년을 맞이했다. (사)비라카미사람의 선교회(본부장 장요나 선교사)는 7일 서울 서초구 햇빛선교회관에서 ‘베트남 선교 30주년 선교심포지엄’을 개막했다. 비라카미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가리킨다. 심포지엄은 8일까지 열린다.

장요나 선교사는 한국인 최초로 베트남 선교를 시작했다. 본명이 장주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1985년 병명도 모

른 채 갑자기 쓰러져 10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했다.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요나’라는 새 이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뒤 90년 사랑의병원선교회 파송으로 베트남에 갔다.

장 선교사와 비라카미사람의 선교회는 교회개혁, 의료 사역, 현지 신학교 사역, 교육 및 구제 사역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의료 사역은 선교를 제한하는 베트남에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16개 병원을 설립하고 무료수술로 구순 구개열 환자 6300여명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다.

장 선교사는 형식적이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가 주어진 2000년 비라카미신학교를 세워 현지인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를 양성했다. 지금까지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교회는 비라카미 지역에 276개 교회를 개척해 비라카미신학교 졸업생들이 사역하게 함으로써 현지교회의 성장을 도왔다. 장

공짜로 담지못한 ‘찬송가 2곡’ 작년 교체됐다

한국찬송가공회, 새찬송가 11장·61장 저작권료부담 이유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김정훈·오창우)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21세기 새찬송가’ 수록곡을 교체했다.

공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원 교단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세기 새찬송가 가운

데 11장과 61장, 194장을 교체하여 출판하게 됐다. 교체의 주된 이유는 법적 분쟁. 3곡 가운데 11장과 61장은 저작권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곡이 바뀌게 됐다.

공회는 “21세기 찬송가의 수록 원칙은 찬송의 원 작곡 및 작사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한

덧붙였다.

공회는 이같은 ‘무상 양도 원칙’에 대해 “찬송가 보급 가격의 상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성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찬송가연구위원회 대표이사 전병구 장로는 “찬송가공회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출발점은 공회 저자작들의 동의도 없이 찬송가에 곡을 수록하고 그 저작권수입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큰 문제는 저작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세금은 고스란히 저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찬송가 수록을 동의했던 저자작들까지도 격분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를 환대할 것은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었다. 편지 끝에는 선교의 지를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는 노래(찬송)가 들려옵니다. 저를 향한 뭇가 격려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 한국어 공부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선교의 창 (13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를 위한 다양한 문화 이해

선교에 있어서 문화를 폐교 말할 수 있을까? 선교지의 토착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건 강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사실 후천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알게 모르게 선천적으로 물려 받은 문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영향은 마치 숨 쉬 는 공기가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또한 문화적이다.

그간 기독교 선교를 돌아보면 타문화 이해 면에서 너무 취약했다. 선교학자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인간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음의 순결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습, 사고 패턴, 가치 체계, 행동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치 못할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질타는 마치 한인 선교사들을 향해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1. 영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인간

세계에는 약 24,000종족이

있다. 이들은 지역과 종교, 인종에 따라 피부색깔과 언어, 그리고 음식문화, 종교의식, 가치관, 생활관습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197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인간 문화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로 오염(tinted) 되어 인간문화 속에는 사탄적(demonic)요소들도 있다.”

따라서 타문화권 선교를 할 때에는 복음 못지않게 현지인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간파해야 한다. 문화는 개인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그 통통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역시 인간에 의해 주도 된 작품이다. 그래서 문화는 다른 동물이나 생물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문화는 변하며 살아 움직이는 동시에 과거의 것들을 보존한다.

2.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각 나라 인사법

세계의 여러 종족들은 그들 나름의 다양한 인사법들을 가지고 있다. 인사의 형식은 그 나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 표현방식을 통해 그들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인사법이 악수이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신성한 힘이 인간의 손에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통치자가 성상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세 때는 기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곤 했는데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이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고 “사웃디 캅”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때 함장한 손이 위로 올라갈수록 공경의 정도가 커진다. 이는 불교 문화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티베트에도 고유의 인사법이 있다. 바로 모자를 벗고 허를 내미는 것이다. 그 의미는 자기는 머리에 뽀도 없고 허도 없으니 악신의 화신인 “랑 다르마”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준다.

아프리카 마사이부족에게는 반가움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짐을 뺏는 인사법이 있다. 그 곳은 물이 부족하였기에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 또한 귀한 것이다. 이로서 짐을 뺏는 것은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문화의 한 유형인 대표적 인 축제

세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다. 축제 기간인 나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기가 계속된다.

송크란 축제(Songkran Festival)는 매년 4월 13-15 일 기간 동안 태국 전역에서 열린다. 공식 휴일은 4월 13-15일로 3일이지만, 전후 약 10일간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기간이 태국 한해 중 기온이 가장 치솟는 건기인데, 건기가 끝난 후 이어지는 우기에 풍부한 비가 내려 한해 농사가 풍요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한 데서 유래했다. 송크란은 흔히 ‘물 축제’라고 불리는 데, 기간 내내 벌이는 떠들썩한 물싸움이 페스티벌의 중심이다. 이때에는 물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설사 물을 맞았다고 인상을 쓴다거나 짜증은 내는 것은 금물이다.

스페인인 “라 토마티나(La Tomatina)” 축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토마토 축제’로, 매

India)는 일명 ‘사랑의 축제’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두력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봄맞이 축제로, 매년 2-3월경 인도 전역에서 열린다. 봄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는 것인 만큼 홀리 당일에는 다양한 빛깔의 색 가루나 물감을 서로의 얼굴이나 몸에 문지르거나 뿌려대고, 색 물감이 든 풍선을 던지거나 물감이 든 물총을 쏘아댄다. 사원과 거리가 온통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이 장관 덕분에 ‘색채의 축제(Festival of colours)’로도 알려져 있다.

맺음 말

선교문화인류학자 폴 히벌트(Paul Hiebert)는 “선교란 특정 문화권의 생산품인 선교사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문화를 쉽게 정죄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과거 선교역사에서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간 한인 세계선교는 너무 공격적이었다. 현지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밀어 붙였다. 그 후유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타 문화권 선교는 그렇게 호라 호라하지 않다. 도처에 암초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과오를 거울삼아 길게 내다보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의 열정 못지않게 문화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지 문화는 개체적으로 인사법에, 집단적으로 축제 가운데 농축되어 있다.

rsong007@hanmail.net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또한 문화적인 존재이다.

그간 기독교 선교는 공격적이었으며 현지 문화를 소홀히 했다.

이상적인 선교란 상대적 문화이해 속에서 절대적 복음을 변증할 때이다.

페루 등에서는 ‘비주(Bisou)’라는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의 불에 살짝 입을 맞추거나 뺨을 부드럽게 부딪친다. 비주는 오른쪽 뺨부터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에게 ‘훈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키오라’ 하면서 코를 각각 다른 편으로 두 번 맞대거나 살짝 누르면 된다. 코를 비비는 이 인사법은 삶의 숨결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태국의 인사법은 “와이”라고 한다. 두 손을 가슴 쪽에 모으

축제들이 있다. 축제는 그들 나름의 강렬한 문화표현이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토착민들의 사상과 정서와 문화를 보게 된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지상 최대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저들은 “리우 카니발”을 즐기 위해 1년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카니발의 어원은 라틴어인 ‘Carnelevamen’(뜻: 살코기를 굽는다)인데, 카니발은 곧 다가오는 사순절이라는 금욕기간에 앞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축제의 진미(眞味)는 삼바 퍼레이드이

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부늘에서 열린다. 매해 평균 4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토마토를 이용해 한 시간 정도 싸움을 즐긴다. 토마토 축제는 1944년 폭락한 토마토 값 때문에 화난 농부들이 분풀이로 토마토를 던진 역사에서 유래했다. 이때 매년 5만 킬로그램의 토마토가 거리를 빨갳게 물들인다고 한다. 이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붉은 토마토의 강렬한 색채와 역동감 넘치는 축제 풍경이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인도의 홀리 축제(Holi,

드라마 신약 (6)



김덕수 목사
(생태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과 3번째 유월절에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외곽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기록론, 교회론, 종말론을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유월절 약 6개월 전,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초막절부터 유월절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유대에서의 사역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과 수전절 대중사역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국으로 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예수혁명’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독립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정

지적인 구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고 다투는 장면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이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인사 청탁(마20:20-21)을

하는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안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불이 내리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꾀적꾀적 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요7:11). 왜냐하면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시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범하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엄청난 설교(요7:14-10:21)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는 “그리스도인 나를 왜 죽이

려고 하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요5:16-18)하셨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정표는 ‘온 곳으로 다시 가신다’(요7:33-34)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끝 날에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메시야가 오셔서 해야 할 설교인데,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하신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 이슈는 “내가 그다(I AM HE!)”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

이렇게 초막절 사역을 하신 후 수전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송을 보냈던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사역보고(눅10:17-24)를 합니다. 또한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25-37)도 말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그리스도, 생명의 빛, 선한 목자... 자기 선포를 계속 하심

(요8:12)이라고 말씀하신 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곧 진리를 깨닫는 것(요8:12-30)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7번의 자기선포(I AM statements)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요6:35), 세상의 빛(요8:12), 양의 문(요10:7), 선한 목자(요10:11), 부활이요 생명(요11:25),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 참 포도나무(요1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선포는 호렐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I AM WHO I AM)과 그 형식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이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초막절에 예수님 설교의 결론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요10:11)입니다.

수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월절 약 3개월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요10:24)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의 질문, 예수님의 설명은 모두 이 질문으로 향합니다. 수전절에도 어김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수전절이 때문에 그 열망이 더욱 큼니다. 수전절은 과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4세에 항거하여 일어난 마카비혁명으로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은 그런 마카비같은 혁명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는 대중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요10:27-3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중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요단동편 베레야로 이동하시어 약 3개월을 사역하십니다. 이 3개월간의 예수님의 설교는 눅13-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즈음의 설교들과 비유들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눅15장의 잃은 것들에 대한 3가지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사역하시던 중, 나사렛의 사망소식을 들으시고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로 급방문을 하셔서 나사렛을 살려내신 후 요단 동편 베레야의 사역을 마무리 하십니다.

시간은 흘러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수난예고를 하십니다(눅18:31-34).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정확히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여리고의 삭개오도 만나시고, 베다니 나사렛의 집도 다시 심방을 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며 주일(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주간 목요일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예수혁명으로 들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그 일주일간의 행적에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파라과이

2019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파라과이 선교사역 현장을 둘러봅니다

2019 2학기 기독교 예술학교의 개학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개강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복음학교로 신학교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써 보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교회는 25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출석, 그동안 쉬고 있던 교인, 낙망하고 있던 교인, 이사 간 교인 모두 초청하여 아름다운 선물과 점심 아사도 잔치를 하였습니다.

2. 기독교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는 2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파라과이 민속의 날을 맞아 역사를 중시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3. 파라과이에 여섯 번째 세운 개척교회 AmorPaz(사랑과 평화)는 입당예배 이후로 차근차근 교육과 훈련과 봉사교회가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새싹들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장차 이 나라 일꾼 되도록...

4. 올해 목회 51년을 맞고 선교사 27년, 이복래 선교사 칠순을 맞아 처음으로 안식이란 단어를 사용 안식월 3개월을 한국서 지내고 왔습니다.

51년 동안 대소가내 경조사에 거의 참석을 못했는데 이것이 핑신도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 목사의 가슴 속앓입니다. 이번에 가족들을 찾아보느라 바빴습니다. 손자손녀들이 장가. 시집을 가서 얘기를 낳았는데 몰라 본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준 어른들, 후원교회, 파라과이서 한국 가신 어르신들 환자, 양로원, 병자, 은사님들과 친구들, 선교사님들, 은퇴한 친구목사들, 은퇴 선교사님들,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지인 목회자 등등 곳곳으로 심방하면서 답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5.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 분교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3)2019년 교사 교수 임용과 신학기 학생 모집이 잘 되어



전도의 문이 넓어지도록.

4)여섯 번째 세운 개척교회 사랑과평화교회 건축과 입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의 등대가 되도록. 천국 일꾼 양성이 잘 진행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드립니다.

jeonggp@hotmail.com

기도/칼럼

영적 전투 자세를 재확립하라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이다. 믿는 자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다.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가 없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왕이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상처받고 찢어진 가정에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어 천국을 이루신다. 그런데 지상의 천국이 천상의 천국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전투적이라는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어두움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부활 승리하셨다. 이제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 벌어진다. 마귀는 전쟁에서 졌지만 패잔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이기고자 지상의 천국을 공격한다. 세상이 천국으로 점령당하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까지 방해하며 덤벼든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다. 마귀와의 휴전은 없다.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적 전투 자세를 재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지상천국이 되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

bible66@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갑상샘항진증

손발이 떨리고 근육마비증세

어떤 질병은 특정성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은 주로 여성

에게 발병하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이다. 하지만 드물게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발병하는 사

례가 있는데, 이때는 예후가 나빠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갑상샘 질환은 주로 여성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서 생길 경우 여성에서 볼 수 없는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 K씨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남성이다. K씨는 건강한 편이지만 일 욕심이 많아서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맡은 일을 끝내고 케이스가 나오면 밤낮 없이 일을 찾아나서는 자타공인 일중독자(Workaholic)다. 그러던 K씨는 3개월 전부터 몸의 이상을 느꼈다. 운몸이

몹시 피곤하고 식욕은 줄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5킬로그램 가량 빠졌으며 손발이 떨렸다. 더 심각한 것은 하지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하지에 마비가 와서 직장에 갈 수 없을 정도였고 결국 이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다. K씨는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특별한 가족병력도 없었다. 최근부터 복용하기 시작한 종합 비타민 외에는 약을 먹는 것이 없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 검진 시 혈압은 150/90mmHg로 조금 높았고 맥박수도 1분당 105회로 빠른 편이었다. K씨

는 걸음으로 보기도 몹시 말라 보였고, 특히 근육의 위축이 심했다. 팔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심전도와 가슴 X선은 정상이었다. 혈액 검사상 갑상샘항진증이 관찰되었고 혈중의 칼륨치가 현저히 감소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K씨는 갑상샘항진증으로 인한 저칼륨성 주기성 마비로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다행히 K씨의 갑상샘항진증은 조기에 발견되어서 갑상샘항진증으로 인한 안구돌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다.

갑상샘 질환은 주로 여성에

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 생길 경우 저칼륨성 주기성마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저칼륨성 주기성 마비(hypokalemic periodic paralysis)는 아시아 남성에서 특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 갑상샘항진증을 앓는 남성에게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단 증상이 생기면 수 시간 또는 수일 동안 근육 마비가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지만 재발할 수도 있다. 갑상샘항진증을 치료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월드미션대학교 OC 상담심리대학원

내 안의 나 만나기



내면가족치료 (IFS) 10주 코스 세미나

2019.10.9 - 12.11 (매주 수요일) 10:00 AM - 12:00 PM

-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IFS로 나 이해하기
- 나를 나 되게 하는 부분, Manager
- 내면의 아픔을 마비시키는 나의 부분들, Firefighter
-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 Exile
- 내 자신, 내 영혼 만나기, Self
- 내 상처 치유하기, Healing Process
- 나의 뇌와 몸과 IFS
- 내 인간관계 돌보기
- 내 영혼,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 내 안의 나 나누기, Part Map

“내면가족치료 (IFS)를 통한 내적 치유와 성장”

*10주 코스 수료자 본교 입학 시 1학점 인정



강사 : 송경화 교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석사
- 클레어몬트신학대학교 상담학 석사, 박사 Candidate
- 현,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 교수
- 현, 클레어몬트한인교회 담임목사 사모

참가비 \$100 (10주 코스) | 선착순 25명

문의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OC 캠퍼스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영어로 보는 성경 (38)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Zephaniah 1:18

18) Neither their silver nor their gold will be able to save them on the day of the Lord's wrath. In the fire of his jealousy the whole earth will be consumed, for he will make a sudden end of all who live on the earth.

(NIV 2011)

WORD & IDIOM

* neither A nor B: A도 B도 ~가 아니다. A도 B도 ~을(를) 할 수 없다 * be able to(+V): ~ 할 수 있다 * jealousy: 질투, 시기 * consume: 소비하다, 소멸시키다 * sudden: 갑작스러운 * make an end of ~: ~를 끝내다.

GRAMMAR

18) Neither their silver nor their gold

그들의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님(명사의 부정)

will be able to save them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on the day of the Lord's wrath.

주의 분노의 날에

→ 주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이나 금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 <neither A nor B>는 주어가 명사 A와 B를 동시에 부정하므로 서술을 하고 있는 내용, 즉 <will be able to save them>은 긍정문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길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부정하지 않고 서술내용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말은 동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on the day of the Lord's wrath>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쓰이는 위치가 자유스럽다. 그러므로 우리말로는 문장의 주어가 되는 <their silver>와 <their gold> 바로 뒤에 넣어 번역을 해도 어색하지 않다. 이 경우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가 된다.

In the fire of his jealousy

그분의 질투의 불 가운데

the whole earth will be consumed.

은 땅이 소멸될 것이다

for he will make a sudden end of all who live on the earth.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끝을 만들 것이다

땅에 사는

→ 그분의 질투의 불 가운데 은 땅이 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끝을 만드실 것(갑작스럽게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 <the whole earth will be consumed>는 <Be+과거분사>의 수동태 문장이다. 땅 자체의 의지로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갑작스럽게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진노의 불에 <은 땅이 소멸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He will make a sudden end>에서 <end>는 끝을 의미하는 명사로서 <make>의 목적어로 쓰였다. 이와 같이 <make+명사>의 형태는 목적어로 쓰인 명사 앞뒤에 수식어를 넣어 부연하기가 편하다. 이 문장의 경우 <make>의 목적어 <end>를 앞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즉 앞에서는 형용사 <sudden>가, 뒤에서는 <of ~> 이가 설명을 해준다. 아래문장을 참고하라.

I decided quickly to go to church. = I made a quick decision to go to church.

STUDY & THOUGH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자들(11,12절 참조)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닥치면 자신들이 축적한 재물에 의지하여 목숨을 건지려 시도해 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 그것은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의 분노가 일단 폭발하면 아무런 은과 금을 바쳐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으며, 정복자인 바벨론 군대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대대적인 학살행위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일차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

■ If we don't give our whole selves to Him, God will not be satisfie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네냐(왕상18:16-17)

엘리아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아합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상을 먼저 처치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는 엘리아를 그냥 두었다고 자신이 죽을까봐 크게 두려워해 아합왕을 만나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엘리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겠다고

나아갑니다. 엘리아가 드디어 아합을 만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경건한 성도는 의를 위해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아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핍박도 당한 준비가 되었는지요?

화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왕상18:17-19)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아가 만나자고 한다고 하니 아합이 만사를 제쳐놓고 엘리아에게 달려옵니다. 지금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몇년 동안 비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엘리아를 잡아죽여야 비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

키다가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으면 크게 기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해서 욕을 먹는 경우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왕상18:20-22)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사면에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엘리아는 우상을 없애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든지 바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목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왕상18:23-24)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고백이 필요합니다. 엘리아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라는 말을 한 후 홀로 우상과 대결합니다. 엘리아가 이겼고 우상의 대표자들은 모조리 목이 베여 죽었습니다. 엘리아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너그러워 해야 하여야 하겠습니까. 엘리아가 어떻게 대결할까를 먼저 제시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이 늘 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금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왕상18:24-25)

엘리아 선지자가 너희가 먼저 하라고 하니 우상숭배자들이 바알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고 자기편은 450명이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대결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엘리아의 여유입니다. 지금 엘리아는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정말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폭동이 일어나

엘리아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겁먹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사는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왕상18:25-29)

우상숭배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라고 단 주위에서 날뛰지만 우상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뭔가 대단하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힘을 다하면 뭔가 얻을 듯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가 잘될 때 기

뻐하고 안 될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아플 때 고쳐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시고 끝까지 손잡고 때로는 등에 업고 함께 가십니다. 우리는 실망시키고 배반할 때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준비전교회, 퀸즈장로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인/터/뷰

하와이 우리교회 담임 봉영찬 목사

“회중들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하라”

하와이 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봉영찬 목사가 '찬양목회' 집회 차 LA를 방문했다. 봉 목사는 2002년 하와이로 이주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오며 오직 '찬양목회'에 승부를 걸었다. 금번 LA 방문을 통해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수련회와 두 교회 집회를 마친 봉영찬 목사에게 찬양목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홍수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할 때 찬양 외에 드릴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찬양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 반 이상 찬양을 드립니다. 30분-35분 정도 찬양을 드리지요. 정성이 담긴 찬양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봉 목사는 찬양이 넘치는 현세를 비추어 ‘홍수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세대’라고 표했다.

오늘날 많은 찬양 팀, 가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줄고 있다고 평한다. 그러나 자연 듣는 찬양으로 많이 바뀌었고 유명한 이틀만 찬양을 독점하고 나이 들고 평범한 평신도들은 듣기만 하는 수동적 찬양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찬양 1040 프로그램

봉 목사는 얼마 전, 자신의 교회에서 3년째 이어지는 찬양 1040행사를 마쳤다. 40일 동안 찬양 1000곡을 부르는 집회다.

매일저녁 7시에 시작하면 9시가 넘어야 끝나는 찬양집회는 하루에 25곡의 찬양과 짧은 메시지로 진행된다. 1040 집회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자격도 충분치 않고, 정식 부인의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

의 찬양을 드리자고 결단하고 집회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찬송가 일만곡 부르기, 3일집회로 모여 부르기, 월삭기도회로 모여 찬송 부르기, 절기 찬양들 배워 부르기, 1년에 12곡 암송하기, 임직자 30곡 외우기 등등... 많은 사역을 진행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등 놀라운

부르자고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안에 있는 나에게’ 등을 부르는데 줌 전에 찬양팀의 인도로 부른 소리가 10이라고 한다면 피아노 반주에 따라 회중과 함께 부른 찬송의 소리는 100이라 할 수 있었지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 새로운 가사와 빠른 템포의 찬양을 인도하지만 회중들은 따라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이 현대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한 주간에 20곡도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러면서도 구원자, 전능의 왕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구원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내 평생에, 호흡 있는 동안 밤낮으로 찬양함이 마땅하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찬송 속에 있어

봉 목사가 말하는 부흥은 ‘구원에 감사하는 찬송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잔뜩 모인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봉 목사는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경험된 찬송들을 놓치면 회중을 은혜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현대의 찬양은 박자도 가사도 어려워 수동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우리가 은혜 받으며 불렀던 찬송이나 찬양을 부르면 회중들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라고 강조한다.

봉 목사가 섬기는 ‘우리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이 부르는 찬송곡수를 체크한다고 한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찬송을 부르다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수련회가 있었다. 요세미티를 향해 가는 도중 차에 문제가 있어 1시간 30분을 뜨거운 길에서 지체했어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봉 목사의 찬송 강의와 함께 부른 찬송 속에서 지루함도 투정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봉 목사는 ‘진정한 영성회복은 찬송에서부터’라고 말한다.

그는 요즘 곳곳에서 초청받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2020년 목회계획 세미나 찬양목회 강사로 서게 된다.

문의: youngchanbong@gmail.com (이성자 기자)



본지를 방문한 하와이 우리교회 봉영찬 목사

설교자, 기도자, 찬양인도자는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주목적 찬양1040, 일만곡, 3일집회, 월삭기도회, 절기찬양 등 찬양 부르기 주력

은혜를 경험 했다고 들려준다.

마음 담은 찬송을 놓치는 현대교회 요즘 현대교회 최고의 시설과 장비, 수많은 찬양인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놓치는 것은 ‘회중들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놓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봉 목사.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대교회 5곳에서 집회를 했지요. 찬양팀이 15분 동안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인도를 마치고 제 시간이 돼 제가 다시 찬송을

부르거나 거의 입을 봉하게 되다시피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은혜 받은 찬송을 부르니 물 만난 것처럼 큰 공간이 찬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교자나 기도자, 찬양인도자들은 모든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회중이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현대교회를 향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성도들은 하루 몇 곡의 찬양을 드릴까?

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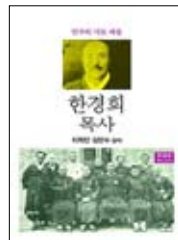
현대기기의 음악이 너무 크면 우리 회중의 소리가 줄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의 소리는 점점 소극적이 되고 기계음악, 마이크음악으로 가니 풍성해 보이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으나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 없어지고 피폐해지게 마련이라고. 마치 바닷물은 많으나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고 한다.

유명한 목사, 신학교 모든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 왜 체재되는가를 ‘순수한 찬양을 잊어 버린 까닭’이라고 지적한다.

새책소개

“만주의 사도바울 한경희 목사” 개정판

이학인/김만수 공저



지난 2004년 이학인, 김만수 목사의 공저로 출간됐던 “만주의 사도바울 한경희 목사”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됐다.

순수한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불타던 만주의 사도 바울 한경희 목사의 사적이 점점 잊혀 가고 점차 변질되어가는 듯 한 한국교회의 현실이 안타까워 “순수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만이 한국교회의 재기의 길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김만수 목사는 “‘평북전도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며 “요전교 동문외교회 성도들의 복음전도에 대한 열기와 용천노회 탄생의 과정을 밝히 알고 배우며 실천할 때 한국교회

의 앞날은 그 장도가 분명하다”고 개정판 서문을 통해 말하고 있다.

2004년 출간한 “만주의 사도 바울 한경희 목사”를 집필하며 그 당시 김만수 목사는 직접 만

“순수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만이 한국교회 재기의 길”

주를 방문해 한경희 목사의 순교지를 찾았을 때의 감격과 두 번째 여행 시 양자촌 교당골의 ‘야소교 초립 비명’ 같은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보고 이를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출간 목적을 내비추기도

했다. 본 개정판은 1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총 6장으로 구성돼 1장 어린 시절, 2장 복음을 받아들인 후, 3장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한경희 조사, 형성, 8장 서간도 동포교회 설립과 전도자들, 9장 서간도 전도목사로 10장, 서간도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한경희 목사, 11장 경신참변과 서간도교회가 당한 핍박, 12장 서간도교

회의 재기 13장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포를 위해서, 14장 혼란과 어려움을 헤쳐 가는 서간도교회를 수록했다. 제 3편 ‘복음만을 위해서’에는 15장 민족의 소망을 위하여, 16장 전도의 최전선 북만으로 를 게재했

다. 한편 부록으로는 ‘신민주 지방방위 재판기록’과 ‘한경희 목사님의 설교’, ‘한경희 목사 연보(年譜)’와 ‘한경희 목사 가족 순교관련 글이 수록돼 있다.

본서를 추천한 민경배 목사는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에 빛을 던져줄 거대한 기독교 신앙의 힘에 대한 기록’이라고 치하했으며 윤경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일제 강점기하한민족사를 복음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추천했다.

구입문의: timothyankim@yahoo.com (이성자 기자)

피종진 목사 초청 10월 국·내외 부흥성회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GoodTV 방송 생명의 샘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월드미션뉴스 - www.wgmnews.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 9.30(월)~2(수) 일본(JAPAN) 동경 나라타 총회신학교(학장 정스데반 목사) ☎ 070-8625-9116
7(월) 오전 서울 주영광고회(박정하 목사) ☎ 010-8898-4947

제221차 해외성회(221st Overseas Assembly)

- 7(월)~ 8(화) 미국(U.S.A) LA 한미사모연합세미나
장소: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주최: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 목사, 사장 이영선 목사)
목회자사모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9(수) 저녁 미국(U.S.A) LA 은혜선교교회(김관진 목사) ☎(213)321-6019
12(토)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 발기인대회
장소: 서울 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02)2669-2200
14(월) 오후 제96회 동서울노회 정기노회
장소: 서울 세곡교회(박익서 목사) ☎(02)445-0181
14(월)~15(화) 태국(Thailand) 방콕 GOODTV 부흥협 강사단 MT
GoodTV부흥사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15(화)~17(목) 태국(Thailand) 파타야 아시아선교사대회
주최: GOODTV부흥사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21(월) 오전 KAICAM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송용필 목사)
장소: 분당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02)3673-1323
21(월)~24(목) 대구 주담신수양관(원장 박찬애) ☎(053)768-6205
24(목) 오후 다드림국제예술선교회 대예술회(장소: 대전구민회관) ☎ 010-4519-3259
주최: 다드림세계선교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고문 김동진 장로, 총재 전정순 목사)
25(금)~27(주) 미국(U.S.A) LA 올리브나무교회(서정희) ☎(213)509-9066
28(월)~30(수) 미국(U.S.A) LA 엘림장로교회(장혜숙 목사) ☎(562)745-7474
31(목) 미국(U.S.A) LA & 남가주지역 I pray for all Nation 기도대회(준비위원장 Sunny Lee)

